

청교도의 신앙으로 출발한 미국이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통회하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다스리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찌라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라다

아모스 5장 23-24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2월5일 (토) 제 186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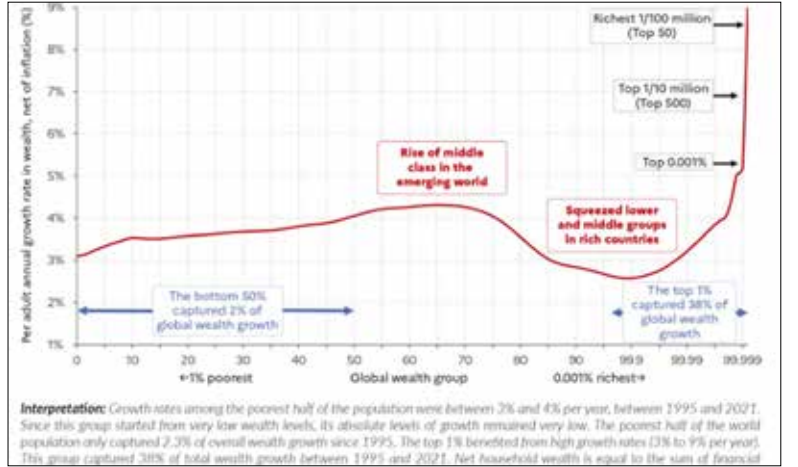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민주당, 연방대법 진보노선으로 변경 급발진!

미 언론,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 은퇴결정배경과 향후 정국예측 제시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이 지난 달 27일, 올해 6월말 은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종신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의 정치성향이 보수 절대 우위로 굳어지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보여진다. 올해 83세인 브라이어 대법관은 빌 클린턴 정부 때 임명돼 28년째 대법관직을 수행해왔다. 그는 작년 6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무효화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문을 작성한 바 있다. 또 낙태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지난 2016년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과 2020년 루이지애나 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015년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도 힘을 실었다. 따라서 미 언론은 브라이어 대법관 은퇴결정 이전에 논란이 됐던 민주당 주도의 연방대법관의 종신제 의의 제기와 맞물려, 민주당의 정치적 막후 활동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말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패색이 짙은 민주당의 정치적 꿈수가 이번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팬데믹 기간 세계 10대 부호 자산 2배 증가

옥스팜 '2022 불평등보고서, 심화하는 전 세계적 불평등에 우려 표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훨씬 더 부유해졌고 더 많은 이들이 가난해졌다고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밝혔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빈곤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매일 2만1000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세계 10대 부호들의 자산은 2020년 3월 이후 2배 이상 늘었다. 옥스팜은 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개막에 맞춰 글로벌 불평등 보고서를 출간한다. WEF에서는 정·재계 지도자와 유명인사, 사회운동가, 경제학자, 기자 등 수천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스위스 스키 리조트에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함께 와인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 올해 WEF는 1월 중순 개최되기로 했지만 여름 초로 연기됐다. WEF 토론 주제는 팬데믹 이후 미래와 백신 형평성,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다(Ten richest men double their fortunes in pandemic while incomes of 99 percent of humanity fall).

대니 스리스크안다라하 옥스팜 사무총장은 경제와 비즈니스, 정치 분야 엘리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년 보고서 발간 시기를 WEF 개최일과 맞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동안 거의 매일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반면 세계인구의 99%는 이통제함과 국제무역 및 관광감소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고 1억60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으로 내몰렸습니다." (3면으로 계속)



특히 트럼프 임기 막판이었던 2020년 9월 '진보'의 상징적인 루스 베이더 킨즈버그 전 대법관이 사망한 뒤 후임 인선과정에서 그의 은퇴 결심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 후임으로 강경 보수인 에이미 코니 바렛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 됐다. 이런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인해 낙태권, 성소수자 권리, 총기규제 등 대법원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이슈들이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공화당의 엄청난 정치적 계산 때문이기도 하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6년 2월 대선을 9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 공석이 생겼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메릭 갈랜드 현 법무부 장관을 당시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미치 매크넬 당시 상원 원내대표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 대통령이 후임

을 임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버렸다. 결국 이 공석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 뒤늦게 대법관으로 채워졌다. 2020년 킨즈버그 대법관은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사망했지만 공화당은 '그때는 그때'라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태도로 4년 전 발언을 뒤집고 후임 인준을 초스피드로 진행했다. 에이미 코니 바렛 대법관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인준절차를 마쳤다. 당시 킨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은 '내 후임은 새 대통령이 채우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진보진영에서는 브라이어 대법관이 진

보 대법관을 후임으로 임명할 수 있을 때 은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브라이어 대법관이 이를 수용한 셈이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은퇴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대법관으로 일해 온 것에 대해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특권이자 영광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이어 대법관에 대해 "이 나라가 분열된 시기에 재판부를 하나로 모으려 가장 모범적인 공직자였다"고 치하했다. 바이든은 이어 그의 후임으로 대선 때 약속했던 것처럼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비범한 자질, 자비심, 경험, 성실함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겠다"며 "이 분은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과 협의를 거쳐 '2월말 이전에 지명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후보지명 후 13일 만에 첫 청문회를 가졌던 에이미 코니 바렛 대법관과 유사하게 인준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최초 흑인여성 대법관 후보로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항소법원 판사, 레온드라 크루거 캘리포니아 대법원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후보군 중 한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다만 브라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진보성향의 흑인여성 대법관이 무사히 임명된다 하더라도 보수 6 대 진보 3이라는 보수 절대 우위 구도는 변함이 없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이규섭 목사	 말씀과 땅 박성현 박사
3면	4면	8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godwinbooks.com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ATS 정회원 ABHE 정회원 tracs TRACS 정회원 CHEA CIQG

학위과정	교차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교차문화(신교학)석사(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MA CC) 신학사(BA) 기독교 상담학 학사(BA CC)
특혜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교내의 장학금 수여 한국어, English, 중국어, Spanish Track 운영중 LA Extension (317 W. Palmer Ave., Glendale)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학비보조(FSA), Pell & Cal Grant수여 대면, Zoom Sync, 통신으로 강의 수강 가능 학사 학위부터 석사학위 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박사과정은 50%) HD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강의 제공

2022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릴리재단 백만불 그랜트 수령
Grace Mission University는 Lilly Endowment Inc.로부터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 (내일을 향한 청경 이니셔티브) 2차에 선정되어 지난 12월에 \$1,000,000의 Grant를 받았습니다.
GMU는 이 Grant로 21세기 신학 교육을 받은 미래의 목회자를 제공하는 신학대학원이 되기 위해 향후 3년간 다음 4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릴리 재단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미래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개선 프로젝트
(2) 다문화/다인종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
(3)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디지털 도서관 설립 프로젝트
(4) IT & 미디어에 능숙한 미래의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

릴리 인다우먼트는인디애나폴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1937년에 J.K. 릴리 시니어와 그의 아들 엘리와 J.K. 릴리 Jr.가 제약회사인 Eli Lilly & Company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세운 사설 자선재단입니다.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입학 문의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W Valencia Dr S Brookhurst Dr S Locust Dr S Wanda Dr

발행인 칼럼

희망을 말하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며칠 전 필자가 사는 뉴욕에는 폭설이 있었다. 영화 '겨울왕국'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모든 만물이 눈과 함께 얼어붙었다. 교회 앞 도로와 교회 주차장에 눈이 쌓여갈 때, 그 눈을 밟아도 치우고 낮에도 치우 새벽예배도 드렸고 주일예배도 무난히 드렸다. 지금은 화창한 날씨이지만 폭설 때에 도로변에 세워 놓았던 차를 바로 끄집어내지 못해 그 눈이 차바퀴를 에워싸고 얼어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차들도 꽤 있다. 상황은 같았는데 반응에 따라 각각 회복이 다름을 보고 있다. 그리고 보니 모든 것은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자아낸다. 꼭 십 년 전이다. 2012년 2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우리 곁을 떠나신 분이 있다. 고(故) 강영우 박사이다. 그에게는 물리적인 시각은 없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의 제목은 이렇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는 희망만 보았기에 희망만 말했다. 그의 마지막 말을 들어 보자. "...나의 장애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 주신 축복이었다. 지난 50여 년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을 통해 감히 꿈꿀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일들을 나는 해냈다..."

달라스에서 고(故)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암살당한 도로를 지난 적이 있었다. 그가 냉전의 시대에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도 전의 희망을 외쳤고 그것이 달 착륙으로 이루어졌던 역사적 일들이 새록 기억났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땅과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부하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신하들이 걱정스러워 물었다. "대왕이시여, 이렇게 다 나누어주시니 대왕 것은 아무 것도 없나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당당하게 말했다. "나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신하들을 침을 꼴팍 삼키며 귀를 쫑긋하고 왕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은 희망이다. 내겐 희망이 있다." 그는 희망을 말하였다. 꺼지지 않는 희망, 불타오르는 희망의 언어가 그를 역사의 인물로 만들었다. 마틴 루터 킹도 인종차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겐 꿈이 있다고 희망을 말함으로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하였다. 험한 바다 물결이 넘실대지만 그것을 넘어가자는 희망의 노래가 있다. 장미꽃 가시에도 아픔과 거절과 외로움 가운데도 감사한다는 희망의 찬양도 있다.

갈매기도 말한다. 그의 이름은 조나단이다. 그가 해변 가에서만 먹이를 찾는 다른 갈매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가 있다. 우리는 더 먼 바다를 볼 수가 있다." 조나단은 그렇게 희망을 말했다. 다른 갈매기들은 희망을 말하는 조나단을 미친 것으로 여겼다. 오래전 리처드 바크의 원작으로 만든 영화 '갈매기의 꿈'을 보면서 절망의 사회에서 희망을 말하는 쉽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다. 해가 바뀌고 달도 바뀌었는데 암울함이 계속된다. 계속 절망할 것인가. 아니다. 이러한 한때에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 있다. 희망을 말하는 것이다.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희망하기를 자칫 놓치면 그 회복의 시간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희망은 근거 없는 신기루가 아니다. 그저 단순 요망 사항인 수준이 아니다. 그 희망은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확신 있게 희망을 말하면 거기에 권세도 있고 실제도 따른다. 그러나 아직 시대가 짙은 어둠 가운데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희망을 말하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의 시대' 선전하는 국제무대?

BBC, '2008 하계올림픽과 너무 다른 '2022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국 현지분위기 보도

시진핑의 입장 △중국은 100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중국의 시대가 도래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세계무대에 올바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수용해야 한다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둔 중국 베이징, 이제 곧 세계 최초로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도시가 된다. 하지만 2008년(하계올림픽 개최년도)의 중국과 2022년(동계올림픽 개최년도)은 중국은 천양천지다.

BBC 중국 베이징 특파원 스티븐 맥도넬은 분위기와 주최국의 태도, 베이징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 등 모든 것이 다르다고 전한다(Beijing 2022 vs 2008: Two Olympics and two very different Chinas).

나는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취재했다. 지금도 베이징에 살고 있다. 그런데 2022년의 분위기가 확실히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체감한다.



보통 동계올림픽은 하계올림픽보다 관심을 덜 받는다. 올림픽에 투자하는 국가의 수만 해도 하계 올림픽이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있다.

변영을 강조하며 전 세계에 중국을 과시했다. 새로운 건축 걸작, 도시의 활력과 즐거움, 멋진 예술행사, 언더그라운드 밴드, 외국의 사상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을 보여주

2008년 올림픽 개최권을 얻기 위해 중국은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고 진보하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몇 가지 변화를 발표했다. 외신에 대한 여행규제를

다가 이번에 다시 베이징에 온다면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의 기반 교통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8년 당시 베이징 지하철은 올림픽 직전에 추가된 2개의 노선을 포함해 총 4개의 노선만 있었다. 현재는 27개 노선에 459개 역(더 늘어날 예정)을 가진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다.

2022년, 사라지는 공간들

하지만 베이징을 다시 방문한 사람이 조금 더 깊이 파고 든다면 공산당의 입장과 다른 것들에 대한 관용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사

반체제인사 구금, 위구르족 인권유린 등... 해외 대표단 축소 예상 중국이 바라는 올림픽 모습 맞춰 제작·장이며, 문화적 비전은 유지

대신 국영기업이나 공산당 기관들을 통해 방역조치 준수, 관람 전후의 다중검사 등 엄격한 바이러스 통제조치를 따를 이들에게 입장권이 배포되고 있다.

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의 중국은 공산당 지도부가 달라졌고 이들의 우선순위 역시 이전과 다르다.

완화한 것도 그 중 하나였다. 그때까지 언론인들은 어느 곳이든 중국 내 지역들을 방문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라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반체제 인사들은 올림픽 무렵에 핑지 풍파를 일으키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없었더라도 중국은 2008년의 그 중국이 아니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중국은 20세기, 즉 100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중국의 시대가 도래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올바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중국을 수용해야 한다.

2008년 나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현재 주미 중국 대사로 있는 당시의 외교부장관 친강을 만났다.

이런 일이 있었다. 차이는 침묵할 지식인이나 인권변호사가 이제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오래 전에 구금됐다.

2008년 중국은 남부지역 눈보라사태가 발생하며 참담한 분위기에서 새해를 시작했다. 이어 티베트에서 승려들의 봉기가 일어났고, 쓰촨 대지진으로 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국제사회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중국을 연민했다.

'미래지향적인' 2008년의 중국

우리는 그에게 올림픽이 끝나면 언론인들을 위한 규제가 예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학계 인사들도 자신들의 발언이 자칫 국가를 비하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인터뷰를 꺼리고 있다. 변화는 이것만이 아니다.

2008 베이징올림픽은 이러한 호의 속에서 개막했다. 당시 공산당 지도자들은 경제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의 유혈진압 이후 베이징은 2000년 올림픽 유치경쟁에서 시드니에 패했다.

"말도 안 되죠." 그는 웃으면서, 자동차 기어를 다루는 흉내를 냈다. "중국은 기어가 하나뿐이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다.

2008년 올림픽 무렵 베이징에는 독특하고 자유로운 밤 문화가 있었다. 해외에서 온 방문객들은 현장의 에너지에 넋을 잃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됐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민주당, 연방대법...

(1면에서 계속)

한편 미국의 연방대법관 중신제를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을 담은 보고서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이번 기용 되면 수십년간 대법관을 할 수 있는 미국 사법 체계의 독특하면서도 대표적인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대법원 개혁을 논의한 초당적 검토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지난 달 7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적 영향력이 큰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쏠림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공화당 주도 상원에서 거부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해에는 별세한 진보성향 대법관 루스 베이더 킨즈버그의 후임으로 보수색이 강한 에이미 코니 배럿이 기용된 것

에 대한 민주당 쪽 불만이 배경이다. 미국의 대법관 중신제는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고인 물'이 될 수 있고, 특정 정당이 '알박기'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1960년대 말 평균 15년이던 대법관 근속기간은 현재 26년으로 늘었다. 1991년 지명된 클라런스 토머스(73) 대법관이 가장 오래됐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50살 때인 2005년 사법부 수장이 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4년마다 바꿀 수 있으며 대법원 구성은 특정 진영이 장기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민주적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검토위원회 보고서는 임기 제한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면서,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사망할 때까지 자리가 보장되는 현행제도를 임기 18년으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하면 각 대통령마다 대법관을 2명씩 고르게 지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느 당 소속 대통령의 지명을 받

은 인사가 많이 포진하느냐에 따라 판결 성향이 뚜렷이 갈리면서 연방대법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도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총규제, 종교의 자유, 낙태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진 상황이기도 더 그렇다. 최근 낙태제한을 강화하는 미시시피 주 법률을 둘러싼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임신 22-24주 전에는 여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한 1973년 판례를 폐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해칠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한편 검토위원회는 현재 9명인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 이견이 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관 자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특정 이념 쏠림현상이 일어날다고 주장한다. 공화당 쪽은 이를 진보 성향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민주당의 술수라고 본다.

팬데믹 기간 세계 10대...

그는 "경제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옥스팜은 포브스를 인용해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베르나르 아르노와 그 일가, 빌 게이츠, 래리 엘리슨,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발머, 워런 버핏을 세계 10대 부호로 소개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0대 부호의 총자산은 7000억 달러에서 1조5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물론 머스크의 자산이 1000% 증가한 데 비해 빌게이츠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소폭인 30% 증가하는 등 개인별 차이는 존재했다.

옥스팜이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한 팬데믹 초반부터 집계를 시작했다는 점도 조사결과를 약간 왜곡했다.

세계 최대 부호들의 보유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높기 때문이다. 주가가 폭락한 2020년 3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는 것은 애초에 성장 기준점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옥스팜이 집계기준을 팬데믹 직전으로 설정했다면 자산 성장세가 덜 두드러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저자 막스 로슨은 BBC에 "만약 시작점을 2020년 2월로 설정한다고 해도 세계 10대 부호의 자산이 약 7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여전히 역대 최대 증가세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치입니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어떻게 수치를 산출하나?

옥스팜 보고서는 포브스 선정 역만장자 리스트와 2000년부터 세계 부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크레디트 스위스 연례 세계 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포브스는 역만장자가 '보유한 것'을 집계하기 위해 주로 재산과 토지를 포함한 개인자산가치에서 부채를 제해 수치를 산출한다. 임금이나 소득도 제외된다.

이러한 산출방식은 과거에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미래 수익 잠재력이 높은 학생은 빈곤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옥스팜은 팬데믹 동안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생활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지 보여주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활용해 수치를 보정했다고 밝혔다.

옥스팜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자료를 활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과 기아, 젠더기반폭력, 기후 파괴로 인해 4초마다 한 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억60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5달러 50센트보다 적은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상위 중소득 국가에서 하루 5달러 50센트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규정한다. 스리산다라하

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도 우리의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은 세계적인 부호들에게 엄청난 소득을 가져다줬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은 고강한 경제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앞에 놓였다고 "(새로운 전략을 통해) 우리가 걷고 있는 치명적인 경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산다라하라는 자본과 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진보적 조세제도와 '모두를 위한 양질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더 광범위하고 빠른 코로나19 백신보급을 위해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달 초 데이비드 맬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점점 심화하는 전 세계적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가난한 국가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맬페스 총재는 "약소국에 대한 전망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성의 지도력!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다윗왕은 밋세바를 범했을 뿐 아니라 남편인 충성된 장군 우리아도 죽게 만듭니다. 분명히 왕이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마무시한 왕의 권력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에이, 왕인데 그런 짓이야' 하며 애써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잘못과 죄를 짚으셨습니다.

'밋세바 신드롬'(bathsheba-syndrome)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를 첫마디에 벌써 목욕을 뜻하는 'bath...'라는 말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는 '고위 공무원,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 결핍증'을 말합니다. 내가 왕, 대통령인데, 내가 장관, 비서실장인데, 내가 기업 총수인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총장, 이사장, 문화 예술계의 키페이커인데, 내가 비선 실세인데, 내가 한가닥 하는 이들과 얼마나 친한 사람인데, 내가 목사, 감독, 신부, 주교, 장로인데, '내가 ...인데'하며 실마리 정도쯤이야 감히 누가 뭐라겠느냐? 라고 갑질을 일삼습니다. 아예 이것을 잘못이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도덕적 윤리적 결핍증'이 바로 '밋세바 신드롬'입니다. 현대 이 '밋세바 신드롬'은 불어의 '노블리제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사회의 지도층이라면 그에 따른 높은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의 밋세바와 다윗의 이야기는 약 3000년전 일이지만 오늘날 '밋세바 신드롬'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이에 저항하기 위해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공개적으로 '미투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존경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사랑했던 인물들이 붓물 터지듯 매일같이 뉴스 화면을 한동안 점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높은 곳에서 대책 없이 그냥 뚝뚝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남성들을 적으로 몰아가는 '페미니즘'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타라나 버크'는 "분명 미투 운동은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여성들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남성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관계없이 어느 집단에서든 제도와 권력을 이용하여 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려고 위력을 가할 때, 이것은 분명히 범죄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미투운동'도 '밋세바 신드롬'에 대한 '저항운동'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 장로요, 중요한 인물이기"에 상대적으로 약자들을 성적으로나 회의할 때나 교회생활에서나 강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역시 '밋세바 신드롬'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말씀이 나단 선지자가 되어'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처럼 땅을 치고 자복하며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섬김을 위한 뿐입니다(벧전4:10, 발2:3, 고전12:22-27). 다만 '칭지기'일 따름입니다.

요즘 한국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참 힘들겠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과거의 행적들을 볼 때 '노블리제 오블리주'라는 인성과 선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밋세바 신드롬'과 더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필자가 모 대학교 이사로 있었을 때 총장후보들과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후보들 모두 "내가 총장이 된다면 이렇게 저렇게 장학금을 마련하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시 필자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평교수부터 시작하여 교무처장, 대학원장 등 학교 보직을 다 거치셨는데 꼭 총장이 되어야 그리하나요? 평교수 때는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평상시 진정성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후보 두 분들도 후보가 되고 난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이 평범했을 당시에 행했던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실천과 선행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 후보가 되기 전까지도 이어졌다면 그 진정성은 충분한 '자격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갑갑합니다.

개신교회는 '저항, Protestant'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개신교회와 신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마땅히 '밋세바 신드롬'에 저항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참회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신자들이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밋세바 신드롬'에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야 합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선행을 실천하여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이 나라와 사회를 차별 없이 공평한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진정한 지표, 표지(Sign)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올 한해 우리들의 신앙순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pastor.eun@gmail.com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2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신명기 6 : 1 - 9 (2) 신약주해: 고린도후서 5 : 11 - 21 (3) 논문제목: 팬데믹시대 개혁주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목회전략 (4) 설교본문: 구약 - 시편 95 : 1 - 8, 신약 - 로마서 12 : 1 - 2 (중 택일)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점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징 포함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를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2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6회 총회기간(5월10일 - 13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2년 5월 3일(화) - 4일(수) 장소: 다민족교회 (부총회장 홍귀표 목사 사무)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2년 6월30일 이전 (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경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Pay to the order : WG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3-4일)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음. (3)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주소 :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전화 : 703-725-6468 / 이메일 663927@g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pastor@gmail.com b) 고시부 서기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오세훈 목사 서기 :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 송일용 목사 고시부서기 : 손기성 목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인플루언서(Influencer)

올해 우리교회 표어는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 주소서!'입니다. 이 표어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넓혀 달라, 더 넓은 집을 달라, 더 큰 비즈니스를 달라, 더 큰 사역을 달라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영향력을 넓혀 달라는 간구입니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틱톡) 팔로워가 많은 사람입니다. 팔로워가 많을수록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큼니다. 그 영향력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팔로워들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

하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은 완판 기록을 세우고, 그들이 쓰는 물건은 품절이 되며, 그들이 추천하는 식당은 대박이 나고, 그들의 말 한마디가 유통업계를 뒤흔듭니다.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팔로워가 가장 많은 인플루언서는 레알 마드리드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고 합니다. 위키 피디아는 2021년 12월, 그의 팔로워 수가 3억8천4백만이라고 하고, 영국 '더선' 신문은 2021년 2월, 그의 팔로워 수는 5억명이 넘으며, 2021년 10월, 그가 인스타그램 게시물 한 건당 2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인플루언서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대부분의 영적 인플루언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빌리 그레함 목사, 테레사 수

녀, 디엘 무디 등 몇 명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합니다. F.B 메이어, J.W. 채프만, 빌리 선데이, 모다카이 함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인플루언서들의 뒤에 에드워드 김벌(Kimball)이라는 한 무명의 영적 인플루언서가 있었습니다. 김벌은 예수님을 온전히 팔로워했던 그리스도인이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한 영적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한 시카고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김벌은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19세기와 20세기의 영적

인플루언서였던 무디, 메이어, 채프만, 선데이, 그레함 등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을 세웠고, 이때 세워진 복음전도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인플루언서입니까? 누구의 팔로워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팔로워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팔로워하는지, 또한 우리의 팔로워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팔로워인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인플루언서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인플루언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팔로워인 우리는 개인의 이익, 쾌락, 편리함, 혹은

목표를 위해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 동안 누구의 팔로워로 사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김벌 선생처럼 예수님의 온전한 팔로워가 되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인플루언서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푸/른/초/장

이규섭 목사

(제자삼은교회)



여러분 묵묵히 여기고 성을 돌고 있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보십시오. 조금 전에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 그 기세로 바로 여기고로 쳐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여기고성을 7일 동안 13번이나 돌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계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우리 계산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단순히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여기고 성을 돌았습니다. 말씀대로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일곱 양각 나

뉘 앞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싸움의 승부는 예배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제 6일 동안의 침묵이 지나고 마지막 날 제 칠일째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수 6:16).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이성을 주셨느니라"라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붙고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런데 수6:17을 보면 "이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함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 했

합의 지혜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장차 여호수아 일행이 들어 닥칠 때 라함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을 그 집에 모으고 그 집의 표식으로 붉은 줄을 늘어뜨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에게 미리 알려 붉은 줄이 있는 집은 도움을 준 가정이니 살상하지 말라는 말을 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결박기에는 모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구별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붉은 줄이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붉은 줄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은 라함가정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줄임을 잊지 마십시오.

게다가 그 붉은 줄은 다름 아닌 정탐꾼들이 탈출하는데 사용했던 바로 그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말할 때 '이 붉은 줄'(수2:18)이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은 정탐꾼을 살렸을 뿐 아니라 이제 라함을 살리는 줄이 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 붉은 줄이 없으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수2:19)라고 했습니다. 즉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 값을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의 여기고 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질병이나 물질, 혹은 막힌 인간관계입니까? 문제의 해결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붉은 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총을 잊지 말고, 생명줄임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ks10191@gmail.com

붉은 줄

여호수아 6장 1-7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섰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 끝입니까?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저들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여기고 성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기고 성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고는 가나안 땅의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좀 더 고려해 볼걸 그랬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고성 침공을 앞두고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출생한 남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출생후 8일째 하라고 했기 때문에(레12:3) 그 율법대로라면 벌써 했어야 했는데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미루고 마루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번 여기고 전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룩한 전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것이 화근이 될까 해서 긴급하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쟁 직전에 군사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혹시 적

이 기습이라도 한다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정도 리스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했다. (수6:2) "...보라 내가 여기고와

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좀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을 빙빙 돌기만 하면 여기고성이 무너진다니?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터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싸움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일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지금 눈앞에 거대하게 서 있는 여기고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제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군사는 옛세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 행하되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양각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양

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백성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하기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여기고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을 몇 번 돌았습니까? 13번을 돌았습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 대적과의 싸움에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팔을 불고 언약계 앞에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제사장들을 따라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싸움을 앞둔 전사들이 아니라 마치 예배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중심은 언약계입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일곱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며 나아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배의 모습이죠.

성도의 삶의 승패는 예배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

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기생 라함과 식구들은 살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거역하는 자에게 심판이 되지만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저편에서 정탐꾼을 미리 보내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여기고 사람들은 곧 정탐꾼들을 의심하였고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꼼짝없이 불잡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면에서 계속) 머지않아 전 세계의 이목은 2022년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 쏠릴 것이다. 중국은 신장 내 위구르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일련의 외교적 보이콧 차원에서 이번엔 베이징을 찾는 해외 정

부 대표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다른 국가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강경해진 것과 더불어 많은 해외 정부들도 중국에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이 보여주는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2022년 올림픽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장이며 매우 감독이 문화 대혁명과 대약진운동을 다루던 그의 작품에서 변질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2008년 그가 연출한 시각적 향연은 큰 찬사를 받았다.

그는 정치적 의도 없이 올림픽을 단순히 중국의 현 좌표와

미래 좌표를 보여주는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세계에서 중국의 달라진 위치를 볼 때 그가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주는 것은 꽤 흥미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가 올림픽 전반을 바라보는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전 세계는 이것을 텔레비전으로 보게 될 것이다. 베이징에 오는 외국인들은 올림픽에 참

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뿐이다. 그들은 오직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보조조치 안에 있는 것들만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중국이 바라는 올림픽 모습에 맞춰 만들어진 것들이다. 무슨 일이든 잘 못될까봐 불안해하는 중국정부에게는, 전 세계가 안방에서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는 것이 철저하게 그들이 원하는 바일 것

이다. 이번 올림픽도 영화감독 장 이머우가 예술 감독을 맡았다. 2008년 올림픽과 같은 인물이 연출을 하다 보니 문화적 비전은 적어도 어느 정도나마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캘리포니아 하원발의 AB-1400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One-Size Fits All인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 진정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Health Care For All’ 일까?”

법명: Guaranteed Health Care for All”

발의자가 부르는 애칭: “California Guaranteed HealthCare Bill, Universal Health Care Bill” AB1400” Author: Ash Kalra(민주당 하원의원, 27thDistrict)

발의날짜 및 진행: Feb. 2021 First Reading, 2022년 1월 24일자-Read second time and amended. Ordered returned to second reading. 11:30로 통과. 3번째 단계 기다리고 있음.

요약

AB 1400은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이 그동안 각 개인들이 선택하던 ‘개인 건강보험’들을 금지시키며 오직 하나의 건강보험 프로그램만 존재하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 정책센터(Healthcare Policy Center)에 따르면 AB-1400 발의안은:

△1년 소득이 149,509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세를 인상시키고(Increase income taxes on Californians making more than \$149,509 a year)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들에게 새로운 income and payroll 세금을 추가시킵니다. 그 안에는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1.25%의 payroll tax를 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Add new income and payroll taxes for California businesses, including a 1.25% payroll tax on employers of 50 or more people).

△2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들은 연간 총수입의 2.3%에 대해 새로운 소비세가 부과



로스앤젤레스 열차도둑 160% 증가

됩니다(Impose a new excise tax on businesses of 2.3% of annual gross receipts over \$2 million).

△49,900달러 이상의 돈을 버는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에서 payroll tax를 추가(Add payroll tax on wages for California workers earning over \$49,900).

문제점 요약

이 프로그램은 “모든, 누구나, 아무에게나(지금 캘리포니아에 누가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보편을 다 들게 하겠다고 적고 있는데, 결국 그 재정을 납세자에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자선사업을 하는 것처럼 적고 있지만 그 재정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올린 세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처럼 무조건 보편을 들어야할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처럼 “ANYONE-아무에게나” 까지 커버하는 보편자금을 납세자의 세금으로 제공합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된 후 오바마케어처럼 나중에는 이 정책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과 벌칙이 부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처럼 시민들의 consent없이 보편안에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금지 재정을 집어넣을 찬스가 높기에 더 더욱이 Pro-Life 지지자들과 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결국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One Size Fits All”과

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한가지” 건강보험만 존재하게 만듭니다. 현재 개인건강보험이 절대 완벽하지는 않지만(그들중 정부와 손잡은 곳들도 여럿이기에) 적어도 골라서 각자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안을 읽으면 마치 싸고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 비싼 약을 10달러에 주겠다고 하고 세금을 20달러로 인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정부가 “공짜로”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제 제발 그만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B1400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개개인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을 뿐 아니라 정부가 “건강혜택 선택권”을 독재로 독점을 하게 됩니다.

마치 “건강보험시스템”이라는 큰 기업체가 여러분 가정, 도시, 주에 독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독점을 주정부가 하는 것이지요. 또는 마치 “One-Size 옷”을 사람의 키, 체구, 성별, 좋아하는 색깔, 디자인 등에 상관없이 똑같은걸 입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cookie cutter”과 같이 개인들의 상황/환경/필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가 독점한 이름만 “건강보험”이라

고 만들어진 거대한 정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주정부가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 악법들 때문이고요. 악을 선이라고 하며, 선을 악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밤낮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통과를 시키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는 100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도 아닙니다. \$950.00-“Petty theft”라고 규정한 자들은 감옥을 가도 벌칙이 매우 낮아져서 금방 풀려납니다(Penal Code 459.5 PC).

지난 11월부터 LA 시는 대낮에도 화물열차 속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도난당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리포트가 바로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패시픽(Pacific) 열차회사는 ‘캘리포니아가 도둑에 대한 처벌을 매우 낮추어 놓았기에 경찰이 잡아도 금방 풀려나거나 아예 잡지도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기에 경찰을 불러도 큰 도움을 못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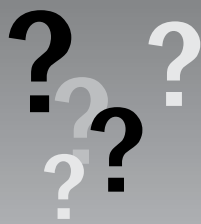
도둑을 잡을 수 없는 경찰, 그것도 법적으로...? 이것이 캘리포니아 맞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도둑이 어디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법이 여러모로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시민들의 “건강보험”까지 독점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개개인의 자유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Tvnex.org 에 가서서 꼭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신분상관없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yunlee@gmail.com

Q: 요즘과 같은 IT시대에 성경도 읽지만 저는 핸드폰과 컴퓨터를 대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것을 통해 각종 정보와 뉴스를 보고 있지만 솔직히 마음은 공허합니다. 이러한 것이 저뿐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크리스천이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LOMITA에서 Kwon.

A: 좋은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과 같은 하이테크(High Tech) 시대에는 하이터치(High Touch)가 필요합니다. 존 네이스빗이 쓴 “하이테크 하이터치(High Tech, High Touch)”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이테크(High Tech)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동안 빛의 속도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버린 과학기술 문명의 총아들입니다. TV, 컴퓨터, 팩스, 인터넷, 이메일, 사이버스페이스, 가상현실, 유전공학, 바이러스, 메모리칩, 디지털, 휴대폰, 고속전철, 스텔스, 네트워크, 다운로드 DDR, 시뮬레이션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이테크 산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는 하이 터치(High Touch)로 정화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의 예배 필요

하이 터치란 무엇인가? 한홍의 거인들의 발자취란 책을 보면 잘 설명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린 자녀와 함께 장난치는 기쁨,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시는 차의 향기, 힘없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는 사랑의 손길,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닥불 앞에서 밤새 나누는 대화, 친구와 몸을 부딪치며 땀 흘리는 힘찬 운동,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읽는 좋은 책 등 인간을 참으로 인간 되게 하는 영혼의 터치가 바로 하이 터치입니다.

크리스천과 교회에 적용해봅시다. 21세기 신세대를 이끌 교회에 영적 리더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하이테크 하이 터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테크 시대에 홍수 같은 정보를 접하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오히려 메말라지고 있고 마음은 차갑습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하이테크 시대에는 예배도 거룩한 지성도 터치하여야 하나 감성을 부드럽게 터치하는 찬양과 설교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이터치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성경공부하며 내 삶을 나누며 교제하며 치유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하이테크 시대에 사람들의 눈과 관심은 SNS와 컴퓨터에 폭 빠져 있습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와 뉴스를 접하나 눈만 피곤할 뿐 마음은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러므로 조용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QT를 통해 성령님의 터치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예배, 찬양, 설교, 교제를 통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이터치(High Touch)를 느끼고 경험해 주는 something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 받게 됩니다.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2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2)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Deuteronomy 6 : 1 - 9
 - 2) NT Exegesis Text : 2 Corinthians 5 : 11 - 21
 - 3) Thesis Topic : Pastoral Ministry Centered on Reformed Worship in the Pandemic Era.
 - 4) Sermon Text : O.T- Psalms 95 : 1 - 8, N.T- Romans 12 : 1 - 2 (choose one)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KisungSon-OTExegesisPaper.pdf)
 - c) Oral Interview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2.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0-13,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3(Tue)~4(Wed), 2022
- b) Place :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Vice Moderator Rev. Timothy Hong)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2.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WGPGC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3-4, 2022) through Rev. Kisung Son.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제출처

Rev. Kisung Son
Address :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Cell : (703) 725-6468 E-mail : 663927@gmail.com

기타문의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kapcpastor@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Kisung Son (703) 725-6468 663927@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오세훈 목사
서기 :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 송일웅 목사
고시부서기 : 손기성 목사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예수님을 주어로 살기”

한국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번 형성된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는 뜻으로 그만큼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습관에 관하여 잔소리를 하고 나쁜 버릇을 고치도록 간섭합니다. 아무런 견제 없이 자라나 다 보면 어느덧 어른이 되어도 그 버릇은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반복하는 행동이 나쁜 습관으로 고착되는 데는 실험에 의하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으로 삶에서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입니다. Habit(습관)이란 어원적으로 라틴어 어근인 hab(영어 ‘가지다’의 have)에서 유래된 단어로 평생 자신의 삶에서 무의식중에 표현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우리 인생의 후반은 전반에 생긴 습관으로 구성된 것을 살아갈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30대까지는 재능이, 40대부터는 습관이 결정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몸매 밴 습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습관이 결국은 내 삶이 되고 인격

으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는데 좋은 습관은 만들기도 힘들고 계속 이어가기도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습관, 운동 습관, 책 읽기와 정리하고 자기 개발하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세상적인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습관을 바꾸게 되었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은 우리의 속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다양한 습관과 삶의 방식조차도 바꾸게 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잠시 무너졌던 삶의 방식이나 계층으로 포기했던 일들을 마음껏 새롭게 함으로 다시 도전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시며 도움을 손길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가지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반복적인 행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방향전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연히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가고 있는 길을 매일 확신하고 혹시 필요하면 재 설정

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우리에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라고 추천하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 매일의 삶에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갈 때 더 좋은 삶의 습관이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2022년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목회자 후보·청빙 교회...혹시 이런 위험신호?

인사가 만사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예배당을 짓는 것만큼이나 ‘어떤 목회자를 모시느냐’가 교회 부흥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신앙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교회마다 새로운 목회자 청빙을 앞두고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청빙위원회’를 꾸리고 목회자 물색에 나선다.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의 선교 전략가이자 목회자인 제이슨 로우 목사는 26일 침례교 소식지인 ‘벵티스트 프레스’에 ‘목회자 청빙 시의 위험징후들’이란 기고문을 통해 목회자 청빙 체크 리스트를 제시했다.

신임 목회자를 찾는 교회 청빙위원회는 후보자 이력서에서 ‘공백기간’이 발견된다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우 목사는 “긴급한 가족사나 개인 질병 등의 이유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조사를 통해 불투명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짧은 임기 패턴”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일례로 어떤 후보자가 자기소개서에 30년 사역경험이 있다고 적었다고 치자. 자세히 따져보니 10개 교회에서 3년씩 사역을 해왔다. 이는 그가 목회자로 청빙되더라도 3년 뒤 같은 교회에 남아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후보자가 현재 또는 과거 교회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가. 그렇다면 그가 교회 안팎의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로우 목사는 진단한다. 각종 미디어나 SNS상의 발언 등도 체크사항이다. 후보자의 지저분한 농담이나 외모·인종·민족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전력 등이다. 이밖에 재정 문제에 아주 민감해하거나 특정한 신학적 입장을 강조하는 경우도 위험 징후로 읽힐 수 있다.

후보자만큼이나 청빙하는 교회의 전임 목회자 임기패턴도 중요하다. 로우 목사는 “여러 명의 전임 목회자 평균 재임 기간이 5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후보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빙위를 통해 답변을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빙위가 후보자에게 교회에 대한 정보를 성의껏 제공하는지도 중요하다. 후보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지 않거나 각종 교회 정보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꺼린다면 위험 징후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청빙위가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청빙 절차를 서두른다면, 목회자의 아내에게도 과도한 사역을 요구하는 식의 비현실적 기대가 없는지도 중요한 체크 사항이다. 후보자에게 ‘완벽한 교회’를 요구하는 것도 위험한 징후다. 이 땅의 교회는 그릇된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목회자를 청빙하는 교회든, 목회자 후보든 이 같은 위험 징후들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로우 목사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설명을 들어야 한다”면서 “그런 뒤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성서공회 즐리어 성경안역 및 보급

대한성서공회는 아프리카 감비아의 소수민족인 즐라족을 위한 즐리어 성경을 완역해 침례교회(계성인 목사)의 후원으



로 이를 현지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감비아는 90% 가량이 이슬람교를 믿는 기독교 불모지 국가다. 대한성서공회는 “국가적으로 이슬람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맹과 빈곤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기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즐리어로 성경이 번역됨으로써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기회가 생겼다. 대한성서공회는 “침례교회교회 파송으로 사역하는 심미란 선교사를 통해서 감비아 내의 18만 명 즐라족을 위해 즐리어 성경이 번역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해 전국 1151개 교회의 후원으로 47억여원의 헌금이 모여 이 가운데 38억원 가량을 해외서서 기증 및 제작 지원, 해외서서 조판비 등 품목 지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보조금, 미얀마 번역 프로젝트 등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몰디브, “기독교음악 방송했다” 대학 고소

한국VOM은 몰디브의 한 대학이 어린이 체육 행사에서 기독교 음악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몰디브 현지 매체인 ‘타임스 오브 마두’를 인용해 30일 밝혔다.



타임스오브마두에 따르면 클리크대학은 테권도 시범을 하던 중 기독교 음악을 틀었다. 학교 측은 재정 목록에서 자금 재생된 것이지 학교에서 기독교를 알리거나 기독교 음악을 내보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몰디브 이슬람 문화부 관계자는 타임스오브마두와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정부는 기독교 음악이 방송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행사 주최 측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 미 국무부는 몰디브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에서 “몰디브가 종교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며 “이슬람이 아닌 종교단체의 예배 장소 설립은 법률로 금지돼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몰디브에선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전파하는 건 형사 범죄로 징역 2년에서 5년에 처해지거나 가택연금될 수 있다. 또 헌법에는 수니파 교리로 정의되는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돼 있다.

한국VOM 한국총리 대표는 “몰디브의 기독교 활동 규제는 새로운 게 아니다”면서 “하지만 최근 경찰은 몰디브어인 디베히어로 된 기독교나 비무슬림의 온라인 종교 게시물을 금지하기 위해 형사 법원에 새로운 형사재판 명령을 요청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기독교가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전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제이 김 목사 크리스체너티투데이에 기고

캘리포니아주 웨스트게이트교회 제이 김 목사는 지난 20일 크리스체너티투데이에 쓴 기고글에서 “가상예배 시대에 노마드 기독교인이 늘었다. 이들이 교회를 찾을 때는 초대교회

기독교인처럼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목사는 최근 디지털 시대와 그 가치가 기독교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책인 ‘야날로그 크리스천’을 출간했다. 그는 “많은 기독교인이 코로나19로 대면예배와 온라인예배 사이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탐색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교회나 교단을 변경하려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팬데믹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여름, 기독교인 3명 중 1명 이상은 자신이 등록된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온라인예배를 들었다. 김 목사는 이 같은 현상이 코로나 때문에 나타났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인 바나그룹에 따르면 2019년에도 성도 5명 중 2명은 여러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했다.

김 목사는 온라인 노마드 기독교인을 향해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처럼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교회인가’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 충성했고 이를 유지하려는 경건한 끈기도 있었다.

다음은 ‘교회 성도인’ 이 사람들과 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행2:44)를 물어야 하며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이 동의하는가’도 살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대면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는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이 교회가 재미 있는가’ 대신 ‘이 교회는 기쁨과 성실이 넘치는 공동체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포의 IS’ 가 돌아왔다...

2020년 미국에 의해 괴멸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슬람국가(IS)’가 다시 발흥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지난 26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자신들을 IS 소속 전사라고 밝힌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이 IS 포로가 수감된 교도소(시리아)와 군부대, 경찰서(이라크)를 잇따라 공격했다.

시리아 북부 하사카에 위치한 교도소를 습격해 시리아군을 쫓아낸 뒤 이곳을 장악했다. 교도소에는 수천명의 IS 포로들이 수감돼 있었다. 이어 이라크 북서부 시리아 접경지대에서는 군기지와 경찰서 등이 이들에 의해 공격당해 경찰관 수명이 참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들을 IS 소속 전사라고 밝힌 이들은 갈로 경찰관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참수장면을 인터넷에 게재하며 “이슬람의 원리에 충실한 IS는 결코 죽지 않는다. 앞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배교자들과 이교도들을 영원히 몰아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시리아 북부는 내전이 불안한 시리아 사정상 정부와 군의 영향력이 여전히 미미한 지역이다. 이라크 북서부 역시 쿠르드족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라크 정부의 영향력이 미미해 치안이 불안한 곳이다.

신문은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사망한 IS는 이전처럼 대규모 세력을 유지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잔당들이 이슬람 근본주의로 무장한 채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정이 불안한 이 지역이 IS 괴멸 이전의 혼란으로 되돌아갈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다행인 것은 IS 잔당세력의 공격이 감행된 지 하루만에 시리아 하사카의 교도소는 다시 쿠르드민병대 등에 의해 장악됐다는 점이다. 쿠르드민병대와 시리아 민주전선은 이 교도

소 탈환을 위해 대규모 합동 공격을 가해 IS 잔당세력을 소탕하고 다시 교도소를 장악했다. 교도소에는 IS 패잔병들과 가족이 IS에 가담하는 바람에 버려진 청소된 700여명이 함께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 과정에서 미국은 쿠르드민병대 등을 돕기 위해 헬리콥터에 의한 공습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IS 괴멸 과정에서 체포된 잔존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반인권적 처우가 이어지면 이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IS가 신봉했던 이슬람극단주의가 다시 퍼지는 양상”이라며 “시리아 내전이 지속되고 이라크 정정 불안이 이어질 경우 IS는 다시 큰 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아프리카에선 반년마다 쿠데타

아프리카에 쿠데타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수단 쿠데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르키나파소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발했다.



30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하루 만인 지난 24일 로우 카보레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발표했다. 반란군은 이날 국영TV 생방송으로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잡았다면서 “이제 부르키나파소는 군사 정부가 통제한다”고 밝혔다. 군정은 성명을 통해 “부르키나파소가 1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 헌정 질서에 복귀할 것”이라며 “헌 정부와 국회는 해산하고 모든 국경을 폐쇄한다”고 덧붙였다.

반란군은 전날 수도 와가두구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총격전을 벌인 끝에 이튿날 사실상 쿠데타 성공을 국내외에 알렸다. 군정은 카보레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체포된 자들이 안전한 곳에 억류돼 있다”고 밝혔다.

부르키나파소 군정은 치안 악화와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등을 쿠데타 이유로 들었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2015년부터 IS와 연계한 무장단체의 준동으로 2000여명이 목숨을 잃고 14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엔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경찰관과 민간인이 다수 숨지자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서아프리카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건 지난 18개월 새 말리, 기니에 이어 세 번째다. 중앙아프리카까지 포함하면 5번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쿠데타 전문가인 조너신 파월 샌트럴폴로리다대 교수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쿠데타가 빈발하는 상황에 대해 “1980년 이후 가장 빈도가 높고 1970년대 군부 지도층이 주동자 돼 독립을 쟁취하던 때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주의 정착이 완전하지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에서 민주 정부의 실책으로 오히려 쿠데타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5일 와가두구 중심가에선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친군부 집회가 열려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로이터통신은 “극심한 빈곤과 고질적 부패, 정부의 테러 대응 실패에 대한 불만이 ‘쿠데타 지지’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일단 쿠데타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십년간 이뤄낸 민주적 성과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민주주의 사회는 반드시 보존해야 할 인류의 가치”라며 “21세기에 군사 쿠데타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와 아프리카연합(AU)은 부르키나파소의 ‘쿠데타 기도’를 규탄하면서 군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39. 김유순(1882-1950)

김유순(金裕淳)은 1882년 12월 17일에 황해도 안악 신전에서 김영식 목사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그는 어릴 때 한문을 수학했고 1904년에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청년 시대에 상계의 참 이치를 깨달아 중생하고 몸을 교회에 던져 널리 복음을 전하였다.”

하와이

김유순은 24세가 되던 “1906년에 하와이 한인교회의 청함을 입어 하와이에 와서 6년간 전도에 종사하였다.” 그는 지방전도사로서 1906년에 오아후섬의 에와교회에 섬겼다. 1907년 3월 보고에 따르면 에와교회의 학습교인이 71명이었고, 세례교인은 17명이었으며, 유아세례 교인은 11명이었고, 주일학교 교직원 12명이 120명의 학생을 지도하였는데, 예배당의 가격은 1,500달러였다. 본 교회는 그의 아버지 김영식 목사가 목회한 교회다.

김유순은 이듬해인 1907년에는 에와교회 외에도 와이아나교회도 목회하였다. 에와교회에서는 이선I와 김운C 등 두 명의 권사와 협력했고, 와이아나교회에서는 조운T 권사와 조한S 권사가 협력했다. 1908년 1월 보고에 따르면 에와교회는 전년도와 비교해 학습교인이 17명이 줄었는데 세례교인은 10명이 늘었으며, 유아세례교인은 7명이 줄었다. 주일학교는 작년과 비교해 교직원이 6명이나 줄었고, 학생은 119명이었다. 이해의 총 헌금액은 35달러였다. 한국인의 이동은 연례적이므로 숫자의 의미는 별로 없다.

와이아나교회의 경우 19명의 학습교인이 24명의 세례교인 그리고 4명의 유아세례교인이 있었고, 5명의 주일학교 교직원이 49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한 사람이 소천하는 비극이 있었다. 와이아나교회는 오후수업의 한인교회 중 유일하게 예배당이 없었는데 농장 지배인의 큰 도움으로 몇 달 동안 교인들이 분발하여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81달러를 헌금했다. 그런데 일반 헌금은 총 5달러에 불과했다.

두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1907년에

김유순이 하와이 지방회 성수 주일부 원으로 활동했다. K. 앤자와 W. 노트와 더불어 그는 주일에 많은 기독교인이 농장에서 일하게 되어 영적 성장이 크게 저하하였다고 보고했다. 그해 고종황제 생신을 맞아 교인



김유순(1907년)

들은 예배당에 모여 고종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고 온 교인이 사진을 찍어 기념했다.

이듬해 1월에 하와이 지방회 리버 스트리트에 있던 일본인 교회에서 있었다. 이해에 그는 와이파후교회, 와하와교회 그리고 아이에야교회로 파송되었다. 1909년 보고에 따르면 와이파후교회에는 학습교인이 19명, 세례교인이 9명이 있었고, 두 곳에 주일학교를 운영하였는데 6명의 교직원 이 29명의 학생이 등록한 가운데 평균적으로 25명이 출석했으며, 총 헌금액은 60달러였고, 예배당 가격은 600달러였다. 와하와교회에서는 김운C 권사와 협력했다.

1909년에도 위와 같은 세 교회에서 사역했다. 1910년 3월 보고에 따르면 전년도와 비교해 와이파후교회는 학습교인은 18명이 늘었고, 세례교인은 4명이 늘었다. 그리고 유아세례교인은 4명이었고, 두 곳에 주일학교를 운영하였는데 교직원은 한 명이 적었지만 학생은 25명이 더 등록하였으며 15명이 엠평 청년회를 조직했고, 총 헌금액은 전해에 비해 44달러가 적은 16달러였으며 예배당 가격은 동일했다.

위의 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김유순은 1908년과 1909년에 하와이 감리교 감리사 존 W. 와드맨 목사가 교장이었던 한인기독교학교에서 교사, 도서

에이전트 그리고 기숙사 사감으로 재직했다. 1909년의 첫 졸업생 6명 중 양 유찬은 그 후 주미대사를 역임했다.

김유순이 1910년에는 아무 사역을 맡지 않았고, 이듬해 1911년에 호랑 밀스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김유순이 1911년에 미국 나성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바이올라대학으로 알려진 로스앤젤레스성경학교(BIOLA)에 입학하였다. 공부한 지 1년이 되던 1912년 7월에 그는 본 성경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한 지 두 달 후인 그해 9월에 김유순이 목사로 안수 받았다.

경성지방 순회 목사

1913년 8월 15일 자 신한민보는 ‘김 씨 환국’이라는 제하에서 “로스앤젤레스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김유순 목사는 특별히 성신의 인도함을 받아 한국에 돌아가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수월 전에 상항을 떠나 하와이로 행하였다니 그곳에서 동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많이 행하고, 금월 1일 천양환(Tenyu) 선편에 귀국하였다더라”고 보도했다.

귀국한 1913년에 김유순은 경성지방 순회 목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사경회 인도자가 되어 이듬해 1914년

마에서 출발하여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그곳 각 교회에서 전도하였다. 그해 다음 달인 12월 13일 자 신한민보는 ‘김유순 목사 하와이를 지낸, 미국에 공부 가는 길에’라는 제하에서 “하와이 국민보를 의지하건데 5년 전 하와이의 사명을 받들고 한국 내지에 들어가 수화 중에 침윤한 동포의 영혼을 건짐에 힘을 다하던 김유순 목사는 미국으로 공부 가는 길에 잠시 하와이에 배를 멈추었으므로 하와이 총회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11월 30일 총회관 안에 큰 환영회를 열어 4개년 간 신앙계에 분투를 시험하고 돌아온 김 목사를 반갑게 맞아 그 연설을 듣고 총총히 떠나는 정을 의로 하였다더라”고 적었다. 그리고 1918년 9월 12일의 신한민보는 작년 11월에 다시 하와이로 건너와서 각 교회를 순회하였다고 보도했다. 그의 순회 전도는 이듬해 9월까지 약 9개월간 계속되었다.

김유순은 1918년 9월 4일에 유학생 9명과 부인 및 여아 2명 등 11명과 함께 난징 선편으로 하와이에서 출발하여 상항에 도착했다. 그달 12일 자 신한민보는 ‘김유순 목사를 맞음, 공경할 복음의 사명’에서 “복음의 사명을 받들고 내외의 동포 신앙계의 한 큰 권위를 베푸는 김유순 목사의 도미는



고종황제 생신 축하식의 예와 교회(1907년) 나라 사랑

김유순은 1918년에 뉴저지 드루신 학교에 입학했다. 그의 나라 사랑은 1919년의 3월 25일자 신한민보에서 잘 드러난다: “김유순 목사의 편지가 본 총회에 도착하였는데 씨가 뉴욕타임스에 기재한 우리의 독립선언과 우리 학생 수백 명이 왜놈의 악독한 형벌을 당하는 전보를 여러 학생들에게 말하였더니 이 학생들이 일치결로 미국 각처 대학교에 통전하며 연합통신사를 경유하여 한국 학생들과 교우들에게 위로하는 전보를 보내고, 각 학교에 광포하여 공동기도를 하게하며, 또한 만국에 호소하여 불의한 법률 하에 있는 한국인민을 보호케 하자 공결하였는데 이 학교의 교수되는 선생들이 만류하여 중지하였으나 이는 국제상 사정을 말미암았으니 씨는 피가 끓고 살이 떨림을 이길 수 없노라 하였다.”

그해 6월에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미미교회 선교 100년 기념회에 남부 아동 등 재미한인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김유순도 있었다. 그들은 연극을 준비하고, 한국 미술품을 진열하여 한국을 소개하였고, 그달 25일 저녁에 그곳 시티클럽에서 한국 참상을 친히 목도하고 귀국한 미국인 S.A. 백 선교사와 정한경을 청하여 삼일운동 이후 한국 시국에 대한 연설이 있었다. 그해 7월 유학생 신분이었던 김유순은 대한민국 적십자회에 의무금 2달러 50센트를 기부하며 나라사랑에 힘을 보탰다.

김유순은 1920년까지 2년간 드루신 학교에서 공부하여 한국 유학생으로 최초라는 명예를 얻었다. 그해 귀국한 그는 순회 부흥목사로 활동하다가 평양 남산현교회, 충남 흥성교회, 해주교회, 천안읍교회, 백천교회, 서울 만리현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면서 지방감리사로도 활동했다. 1929년 6월에 호랑 한인감리교회에서 뉴욕 콜럼비아 신학생 변 씨가 못 가게 되어 본국서 김유순 목사나 조희영 학사 중 한 분을 초빙할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하와이에 가지 않았다. 서울 북아현교회에서 시무할 때인 1949년에 감리교의 제9대 감독으로 피선되었는데, 이듬해 6.25동란 때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공산군에 납북된 후 그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damien.sohn@gmail.com

바이올라대학 졸업 목사안수 받고 4년간 경성 순회목사로 사역 드루신학교 첫 한인학생...1920년 귀국, 목회하다 6.25 때 납북

“3월 23일부터 10일 동안 평양 남산재 교당에서... 매일 밤에 평균 800여 명이 모여... 은혜를 받았으며 당일 기도회와 성경강론회를 행한 후에 전도사 1인을 더 두기로 작정하고... 심히 가난한 자는 밥 지어 먹던 웅달솔까지 팔아 드린 고로 당일 연조가 3백수십원에 달하였다하며... 새로 믿기로 작정한 교인이 300여 명”이었다. 그해 8월 13일 자 신한민보는 ‘도덕상 열심’이라는 제하에서 “로스앤젤레스와 롬복에 있는 동포들은... 김유순 씨의 봉급을 도와주며 장차 전도 사무를 확장하기 위하여 교우들이 고본금을 모집한다는데 벌써 고본에 응한 자가 13, 4인에 달하였는데 그 고본금은 매교에 25달러로 작정하였으나... 자본을 많이 얻은 후에 내지에 전도를 매달하여 전도 사무의 기초와 교육의 기관을 만들겠다더라”고 보도했다.



와하파후 한인감리교회(1905년)

별항에 게재한 바 샌프란시스코한인교회는 9월 7일 하오 8시 30분에 환영회를 열고 씨를 맞아 좋은 말을 주기를 청하며 씨는 내지와 하와이에서 부흥회를 일으키어 힘있게 전도하는 사정을 대강 진술하고 나중 동포 장래에 대하여 가로되 ‘나는 간 곳마다 이와 같이 말하였소.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일이 있고 복이 돌아올 것이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더욱 좋은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오. 좋은 사람을 모아 좋은 사회를 조직한 연후에 우리가 오늘 경유를 면하리라 하였다’고 썼다.

좋은 사람이란 좋은 말씀 곧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1918년 9월 12일자 신한민보에 의하면 김유순이 증가주 다뉴바와 로스앤젤레스를 지나갔으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음을 알게 된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전도

김유순이 1917년 11월 상순에 도미하였다. 도미하던 길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동경 한인기독교청년회는 11월 5일 하오 7시에 성대한 환영회를 열어 그를 관곡이 대접하였는데 그가 동경 한인 기독교청년회를 향해 복음에 굳게 서라고 전도하였을 것이다.

김유순은 그달 11월 15일에 요코하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대민족화합전도: 매주(목)오후 4:00-7:00 Tel: (773) 802-0691, Fax: (773) 802-0692 82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820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금요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베: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 749-93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7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베: 오전 11: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W. Wilmer Rd,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k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 335-1842(H), (254) 501-43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수 백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말씀과 땅 (2) -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2:2).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했을까?

먼저 본문의 번역을 살펴보자. 히브리어 원문과 비취볼 때 창세기 2:2 상반절의 한글 개역개정 번역은 무난하다. 단, 하반절은 수정이 필요한데, “그치고... 안식하시니라”로 번역한 부분은 히브리어의 한 단어를 옮긴 것이다: ‘샤밭’하시니라 (wayyisbō).

이 관점은 그 다음절에도 이어지는데, “마치고... 안식하셨음이니라”(창2:3)로 번역한 내용 역시 히브리어 원문상에서는 한 단어일 뿐이다: ‘샤밭’하셨음이니라(sabat). 이렇게 하나의 히브리어 동사를 한글 개역개정에서 ‘그치고 안식하다’ 또는 ‘마치고 안식하다’ 등 두 동사를 동원해 옮긴 이유는 아마도 ‘샤밭’하다는 동사가 사

2:3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우선 이스라엘이 사백 년간 거역했던 애굽을 살펴보자. 다신주의에서 출발한 애굽은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신왕국(중전 16-11세기)에 이르러 태일신론을 거쳐 유일신론에 이르는 종교형태를 실험적으로 섭렵해가는 중 ‘멤피스 창세신화’를 남게 되었다(사진 참조).

이 신화에 따르면 프타(Ptah) 신이 모든 것을 만든 후 ‘쉬었다’는 것이다. 다른 신들을 낳고 그들을 위한 지경을 정해 성읍을 만들고 사당을 지어 그 안에 프타 자신의 몸의 발현인 나무, 바위, 흙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신상을 세워 신들로 하여금 각각의 형상에 깃들여 살게 하여 애굽이 신국이 되게 한 후 ‘쉬었다’는 것이다. 즉, 세상은 신의 몸이며, 나무, 바위, 흙 모든 것이 그 신의 몸의 발현이고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그 형상을 따라 그 나무, 그 바위, 그 흙으로 만든 신상이라는 것이다.

실이었다. 따라서 ‘쉬’가 창조의 대업을 이룬 신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맞다면 그 특권은 오직 한 분, 실로 만물의 창조주 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창세기 1:1-2:3은 가르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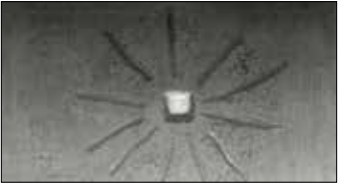
이제 바벨론의 아트라하시스(Atrahasis) 서사시를 통해 신의 ‘쉬’에 관한 또 다른 일면을 살펴보자. 비록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토판은 주전 17세기에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내용 자체는 수메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서사시는 흔히 메소포타미아 판 노아의 방주이야기로 일컬어진다.

이 서사시에 따르면 인간이 신들을 위한 부역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나 그 수가 많아지자 그들의 부르짖음이 최고 신인 엔릴(Enlil)로 하여금 잠을 청할 수 없게 하여 마침내 대홍수로 인간을 쓸어버리고자 했다

가죽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20:10).

인간으로부터 신의 ‘쉬’를 지키고자 인간을 쓸어버려 한다는 바벨론 서사시의 주장과는 정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쉬’로 백성 모두와(당시 종과 객까지도) 그들이 보살피는 가족까지도 초청하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20:8) -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법이기에 전에 하나님의 권위의 구체적 표현이었고 하나님은 이 권위로 ‘쉬’이라는 당신만의 ‘특권’을 그의 백성과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의 ‘특권’은 복이었고 그 복이 우리에게 나눠지게 한 것이 이분의 ‘권위’였다.

모세의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



“멤피스 창세신화”가 새겨진 샤밭고 석(The Shabako Stone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연대: 제 25왕조. 신화내용은 제 19왕조(주전 13세기)로 추정.

전적으로 볼 때 ‘일을 마치고’는 뜻과 ‘안식하다’는 뜻 둘 다를 가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한 단어가 문장상에서 가질 수 있는 뜻은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영어 ESV의 경우 이를 “rested” 한 단어로 옮기고 있는 것은 잘한 것이다.

이처럼 한글번역에도 정확을 기하하면 창세기 2:2 하반절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셨다는 뜻에 대해 살펴보자. 즉, 창세기 문맥에서 안식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 창세기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던 시절 고대근동 민족들 간에는 신의 ‘쉬’에 대한 신화적 나름대로의 이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창세기 1:1-

이런 맥락에서 프타 신이 누린 ‘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피며 있어서 버나드 F. 바토(Bernard F. Batto)는 프타의 ‘쉬’는 창조의 대업을 완성한 신이 누리는 ‘특권’이었다고 정의했다. 이러한 신이 누릴 특권으로서의 ‘쉬’의 모티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가나안 땅 북쪽의 우가릿(Ugarit) 지역 신화와 그 이전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수메르 문명을 뒤 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신화들 속에도 발견된다.

이런 신화들, 특히 애굽의 신화에 젖어 있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1-2:3 말씀을 통해 바른 가르침을 주신다. 세상은 신의 몸뚱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며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생령인 사람이 반영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이며, 반대로 생명이 없는 신상이 반영하는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신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

는 내용이다. 여기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신의 권위에 대한 저항 또는 반역으로 해석되고, 또 엔릴로 하여금 잠을 청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그의 ‘쉬’를 방해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바토(Bernard F. Batto)는 신의 ‘쉬’의 또 한 면은 신의 ‘권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쉬’는 신의 권위의 상징이며 신의 ‘쉬’에 다가서는 인간은 쓸어버려 그 ‘쉬’가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엔릴의 취지였던 것이다.

이 서사시의 내용 역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친숙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창세기 1:1-2:3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리신 하나님의 권위는 자신의 ‘쉬’를 일곱째 날에 두시어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이었다(창2:3). 그리고는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복된 날을 온 백성이 다 함께 누리게 하셨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 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우리를 ‘쉬’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은 일하심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죽음이 이끄는 삶” 같은 책이나 삶의 비전을 강조하는 분들의 말을 생각하면 새해를 맞는 나의 태도는 미래를 향한 계획이나 목표, 비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에게 특별한 새해의 결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시작 때 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가 매일의 삶의 목표요,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되고 짧게라도 틈을 내어 동네 뒷산을 걷게 된다.

우리 집 문 앞에 화분 몇 개가 있다. 대다수는 옛 제자가 다른 주로 이사하면서 나에게 주고 간 것이다. 그 중에 고물나무를 비롯해서 제법 키가 큰 화초가 몇 개 있다. 처음에는 물랐는데 최근에 보니 키 큰 화초들이 하나같이 햇빛이 드는 쪽을 향하여 기울고 있었다. 화초가 놓인 곳이 지붕에 가려서 간접적으로 빛이 드니가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받으려고 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자라는 것이다. 해바라기를 하는 화초들을 보며 새해를 맞는 나의 결심이 있다면 “주 바라기”라는 생각을 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바라기,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마음 중심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두고 주님만 바라기를 소망한다.

문 앞에 있는 화초들과 달리 집 뒤 뜰에 있는 화초들은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울지 않고 하늘을 향해 똑바로 자라고 있다. 굳이 햇빛을 향해 몸을 굽지 않아도 따뜻한 햇빛이 골고루 닿기 때문이다. 문 앞에 있는 화초처럼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받기 위해 햇빛을 향해 몸을 뺏아야 하는 환경에 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 수밖에 없다. 온 몸을 기울여 햇빛을 사모하듯 단절하게 주님을 바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인도한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표를 설정해놓고 애쓰다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우리의 간절함이 아닐까?

(10면으로 계속)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파시픽대학교 교수)

주 바라기

새해가 시작 되니 한 달이 지났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은 신선한 설렘과 기대감을 가져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을 때면 새로운 결심이나 계획을 한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쉬웠던 부분들, 좀 더 잘하고 싶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하는 것이다. 새해 결심은 성경통독, 매일의 QT 등 신앙적인 영역부터 운동, 다이어트 등 건강을 위한 부분까지 무엇이든 삶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다양한 목표를 포함한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새 일은 아니더라도 포용의 결심을 일년 동안 꾸준히 잘 실천해서 연말이 되었을 때 뿌듯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굳게 결심했던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나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봄 학기 첫 수업시간에 각자 소개를 하는데 한 학생이 본인은 올해 성경을 세 번 통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쁜 일상에서 일년에 일독을 목표로 해도 시간내기가 도전이 되는데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성경을 세 번 통독하기가 결심하니 선생님이 나보다 훨씬 나은 학생이라는 생각을 했다. 성경통독 3회가 부담이 되거나 자량이 되지 않고 잘 해내기를 바랄 뿐이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새해 결심을 따로 안하고 있다. 12월 31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일기를 쓰며 결심이라기보다는 새해를 향한 소망을 적는 것이 전부이다.

“목적이지키는 삶” 같은 책이나 삶의 비전을 강조하는 분들의 말을 생각하면 새해를 맞는 나의 태도는 미래를 향한 계획이나 목표, 비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에게 특별한 새해의 결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시작 때 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가 매일의 삶의 목표요,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되고 짧게라도 틈을 내어 동네 뒷산을 걷게 된다.

우리 집 문 앞에 화분 몇 개가 있다. 대다수는 옛 제자가 다른 주로 이사하면서 나에게 주고 간 것이다. 그 중에 고물나무를 비롯해서 제법 키가 큰 화초가 몇 개 있다. 처음에는 물랐는데 최근에 보니 키 큰 화초들이 하나같이 햇빛이 드는 쪽을 향하여 기울고 있었다. 화초가 놓인 곳이 지붕에 가려서 간접적으로 빛이 드니가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받으려고 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자라는 것이다. 해바라기를 하는 화초들을 보며 새해를 맞는 나의 결심이 있다면 “주 바라기”라는 생각을 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바라기,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 마음 중심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두고 주님만 바라기를 소망한다.

문 앞에 있는 화초들과 달리 집 뒤 뜰에 있는 화초들은 어느 한 방향으로 기울지 않고 하늘을 향해 똑바로 자라고 있다. 굳이 햇빛을 향해 몸을 굽지 않아도 따뜻한 햇빛이 골고루 닿기 때문이다. 문 앞에 있는 화초처럼 조금이라도 더 햇빛을 받기 위해 햇빛을 향해 몸을 뺏아야 하는 환경에 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 수밖에 없다. 온 몸을 기울여 햇빛을 사모하듯 단절하게 주님을 바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인도한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표를 설정해놓고 애쓰다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뻗는 우리의 간절함이 아닐까?

(10면으로 계속)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p> <p>담임목사: 이자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229-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갯세미네교회</p> <p>담임목사: 이자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229-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목양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성경학교: 오전 09:45</p> <p>Tel: (718)265-2584, www.mo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p>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통독: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kbc.org 14 Greenock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새벽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733-374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p>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7: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p>뉴욕양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p>뉴욕센트럴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V)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욕주산양교회</p> <p>담임목사: 김희복 주일 1부예배: 오후 1:30 다문화목회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구역모임</p> <p>Tel: (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76-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p>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p> <p>Tel: (718)861-2171, Fax: (718)861-3631 Livingston, NJ 07031</p>
<p>베이스айд 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종석 경인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건교인특별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98, www.baysidechurch.com/V2/ 45-02 21st St.,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p>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분 주일학교: 오후 1:30 청년예배: 오후 3:4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사랑의동산교회</p>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p>새생명인교회</p> <p>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후 7:00(목) 새벽예배: 오전 6:00(목/토) 구역예배: 오후 8:30 구역모임: 오후 10:20(주일)</p> <p>Tel: (850)423-9700, Cell: (212)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어린양개역교회</p> <p>담임목사: 유승례 E 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p>은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nnu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96-4040, www.kqp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p>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8:30(토) 금요중생기도회: 매일 갖게, 셋째, 다섯째, 일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최광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3:0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p> <p>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시 14분 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안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69 1130 N. Lu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교회</p> <p>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미주아남 신학교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6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내 삶의 운항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종종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자신의 생각 또는 의견을 쓴 스티커를 자동차 뒤 범퍼나 유리창에 붙이고 운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확고부동한 철학

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 드러내는 표현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 신호등에 서게 되었는데, 내 앞에 선 자동차의 뒤 범퍼에 이렇게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쓰여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God is the pilot. I'm only the co-pilot." "내 삶의 운항자는 하나님"이라는 운전자의 고백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운항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니면 나 자신?"

내 삶의 운항자는 나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적 능력이나 공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가운데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내 삶은 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며 살아가는 사람

은 자신의 무기력함과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게 되고 비록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운항자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는 삶을 경험하며 삽니다. 소위 가방꾼이 짊어지고, 세속적인 술수와 거짓이 없어도,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기적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삶의 운

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삶의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The pilot' 이십니까? 아니면 'The co-pilot' 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the co-pilot' 일 때 우리의 삶은 피곤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the pilot' 일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ynosupbois@hotmail.com



KAPC 동남부노회가 주최한 성경쓰기대회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KAPC 동남부노회 성경쓰기대회 시상식, 50명 참가

KAPC 동남부노회(노회장 정성환 목사)가 주최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성경쓰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1월 10일 로템장로교회에서 열린 노회 하례회에서 진행됐다. 이 대회는 동남부지역(Alabama, Georgia, Florida, N. Carolina, S. Carolina, Tennessee)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21일부터 12월 12일 성서주일까지 진행됐

으며 총 50명이 참가해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13명, 특별상 2교회를 시상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도 참가상을 시상했다. 대상은 이길자 집사(크레스트뷰 새생명한국교회), 최우수상은 노현숙 사모(헌스빌 영락교회) 박찬영 자매(데이토나 한인장로교회), 김충량 권사(몽고메리 다음커뮤니티교회)가 받았다.

특별상은 교회이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 펠피시제일장로교회와 크레스트뷰 새생명교회에 돌아갔다.

상품으로는 대상 금 두돈과 금 한돈, 반돈, 상품권 등을 전달했으며 노회 산하 교회와 지역단체들이 후원했다.

한편 동남부노회는 총회 차원의 성경쓰기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회장 정성환 목사는 "새생명한국교회는 펜데믹 기간에 성경쓰기로 성경인생의 새생명의 뜻을 피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21년 동남부노회 성경쓰기대회를 통해 작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 앞으로 계속 성경쓰기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소명을 갖게 된다.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듣고 가까이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노회와 총회에 부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KAPC 동남부노회)



살롯 목사회 신년하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살롯 목사회 신년하례회 및 교협임원회

살롯목사회(회장 이현석 목사) 신년 하례회가 지난 1월 23일 제일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설교를 맡은 회장 이현석 목사는 "목회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먹고 소화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더 잘 먹이자"고 역설했다.

예배는 부회장 조재철 목사 사회로 임대문 목사의 기도, 이

현석 목사의 설교, 김기영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참석한 사모들에게 특별한 격려금을 전하고 변함없이 전진하도록 힘을 북돋아줬다.

제일장로교회에서도 참석한 사모 모두에게 빼빼로 상품권

을 전달해 크게 위로했으며, 참석자 모두를 아시안 뷔페에서 만찬을 대접하며 힘찬 전진을 격려했다.

살롯교협 임원회

살롯교협 임원회가 살롯목사회 신년하례회를 마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그동안 성기태 부회장 겸 회계의 수고로 살롯교협이 비영리 기관으로 재등록이 된 것에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정상적 업무진행을 위해 각 회원교회에 연락을 하기로 결의했다.

또 3월 1일에 임원회를 열고 봄 연합부흥회를 위한 논의와 준비 및 진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사제공: 살롯목사회 및 교협임원회)

유기총 대표회장에 김승천 목사 선출

3회 정기총회, 세기총 회장단 참석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삼평종 목사)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지난 1월 17부터 18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하인교회(담임 장황영 목사)에서 진행된 유럽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유기총) 제3회 총회에 참석, 양 기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유럽선교를 위한 협력을 다

짐했다. 유기총은 이날 임원선거를 통해 △대표회장 김승천 목사(프랑스) △사무총장 김도홍 목사(불가리아) 유임 △서기 최규환 목사(헝가리) 등을 선임해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이날 세기총은 신임원들에게 축하를 전한 뒤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가 대표회장 심평

종 목사를 대신해 직전 대표회장 장황영 목사에게 공로장을, 신임 대표회장 김승천 목사에게 취임장을 각각 전달했다.

유럽 11개국 등 13개국 20여 명의 각국 대표 총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간의 일주일 개회예배에서 직전대표회장 장황영 목사(오스트리아)가 '위기를 기회로(행:2:40-47)'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으며, 18일 오전에는 세기총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또 둘째날 오전에 진행된 특

강에는 "위그노처럼"의 저자 성원용 목사(프랑스)가 강사로 나서 위그노에게 배우는 10가지 교훈에 대해 설명하고 스위그노의 역사와 배경 스위그노는 누구인가에 대해 강연했다. 폐회예배는 김승천 목사(프랑스)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유기총은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선교사 8가정에 1,000유로씩 후원했으며, 60여 명의 목회자 선교사를 초청, 목회자 영성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해왔다. 특



유기총 제3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히 이번 총회에서는 환경보호 참여 의미로 종이 인쇄물 없이 디지털 회의자료를 사용했다.

한편 세기총 증경대표회장 황의춘 목사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유기총 총회에 앞서 세기총 터키지회(지회장 이시

윤 선교사)를 방문해 선교협력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유기총 총회를 마친 후 11개국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California.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 실버선교회 2022년 정기총회

뉴저지 실버선교회(대표 양춘길 목사, 이사장 김용철 목사) 2022년 정기총회가 2월 28일(월) 오후 7시 30분 ZOOM(ID:360 011 3080, PC:1111)으로 열린다. 이날 안건은 △정관수정 인준 △신임 임원 소개 △2021년 사업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 발표 △2021년 결산보고 및 2022년 예산 발표 등이다.

▲문의: (201)403-1350, 615-1458

컴퓨터 기초반 개설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가 한인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반을 개설하고 4월 2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초지식과 응용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다. 기초반 학기가 끝나면 컴퓨터 중급반도 진행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문의: (917)887-9173, 담당자 이메일 eunsil.lee@kafsc.org

뉴저지초대교회 박형은 목사 사퇴 밝혀

뉴저지 초대교회 박형은 담임목사(사진)가 1월 30일 주일예배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할벗고 가족 없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생각해왔다"며 은퇴 후가 아니라 힘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형은 목사가 이날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사역지는 한국 컴패션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교회 7대 담임목사로 2017년 7월말 취임감사예배를 드린 박 목사는 취임 4년만 만에 사퇴의사를 밝혔으며 4월 17일 부활주일예배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난다고 발표했다.

15세인 박형은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EM목회(1995-2007) 후 한인 1세 목회를 시작했다. 텍사스 빛내리교회(2007-2011)와 동양선교회(2011-2017)를 거쳐 2017년부터 뉴저지초대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유원정 기자)

박형은 목사는 본지 신년호에 게재된 신년좌담 참석자로 참여할 당시 '가정선교'를 강조한 바 있었는데 이날 발표 시

“예수님으로 화평을 이루자”

뉴저지교협 2022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

뉴저지교협회의 2022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이 지난 1월 25일 오후 7시 필그림선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렸다.

“회복과 연합”(대하7:14)을 주제로 출발한 뉴저지교협 회장 고한승 목사는 “2022년은 2자가 세 번이나 반복돼 다시 시작할 때라고 소리치고 있다며 영어로 re, revival(부흥), renewal(갱신, 재개), resurrection(부활) 등의 의미를 담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지평을 열고 영혼과 삶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자”고 신년사를 전했다.

1부 감사예배는 부회장 박근재 목사 인도로 기도 김건일 장로(부회장), 성경봉독 이용일 목사(사무서기), 특송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지휘 김종윤 목사), 설교 양춘길 목사, 합심 특별기도 송호민 목사(한성개혁교회, “성도들의 삶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장병근 목사(유영교회, “뉴저지 교회와 목회자, 교회의 사역을 위해”), 봉헌 송 김차돌 최유라 부부, 봉헌기도 한동원 목사(기록회계), 광고 김동권 목사(총무), 축도 윤명호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



뉴저지교협 2022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순서로 진행됐다.

양춘길 목사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엡2:14-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사랑, 건강, 미, 재능, 권력, 부, 명성 모든 것이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라며 “팬데믹 시대엔 건강도 내적평화가 중요하다. 총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 복음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는 뉴저지교협과 교회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하례식은 김동권 목사 사회로 개회특별연주: 펜플룻 이승을 집사, 개회선언, 국가제창(한,미), 신년사 고한승 목사, 축사(영성) 이창현 뉴저지한인

회장 정병화 뉴욕총영사 김희복 뉴욕교협회장, 사업보고 고한승 목사, 축가 뉴저지사모합창단(지휘 김미라 사모), 폐회기도 이정환 목사(전 회장) 순

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는 시편 133편 1절을 소개하며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언급하고 “뉴욕과 뉴저지 교회들이 팬데믹에 밀리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며 “뉴저지 온 교회가 기도응답 받고 심령 부흥 받고 계획한 대로 많은 영혼을 구하는 빛나는 뉴저지교협이 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뉴저지교협은 이날 2022년 행사일정으로 △교협 웹사이트 구축 △교협 주소록 발간 △사순절연합 특별 영상새벽기도회 △부활절 연합예배(4월 17일) △전직 회장단 부부 위로연(5월) △호산나전도대회(6월 10일부터) △이단 세미나(미정) △정기총회(9월 20일) 등을 발표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장로연합회 제12대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을 마치고 순서자와 임원진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대연합 이루며 선한 영향력 이루겠다”

뉴욕장로연합회 제12대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2022년 신년감사예배 및 뉴욕장로연합회 제 12대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이 1월 30일 오후 5시 뉴욕선한목사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12대 회장으로 취임한 황규복 장로는 자신을 신앙으로 이끌어준 톨아일랜드성결교회에 감사하며 ‘은고지신’(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알아야 한다)에 대해 언급하며 “세대교체가 아닌 ‘세대연합’을 이루며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레트로(retro) 기관으로 존중받는 장로연합회가 되는데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또 새 비전으로 장로대학 설립(준비위원장 박용기 장로)을 제시하며 스피터장로 교육 △사역장로 교육 △은퇴장로 평생사역 교육 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상임고문으로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 담임)와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를 추대했다.

이임사에 나선 송윤섭 장로는 “코로나팬데믹 상황에서 10

대, 11대 2년간 회장을 맡아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며 “도와준 모든 단체, 개인들에게 감사하고 12대 회장을 도우며 회원의 한 사람으로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이사장 송윤섭 장로(뉴욕한빛교회)도 회장 황규복 장로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품앗이 하는 마음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총무 이주수 장로 인도로 대표기도 송순대 장로(국가조찬기도회 뉴욕지회 회장), 성경봉독 최원호 장로(예배부회장), 특별찬양 장로성가단 중창단, 설교 김희복 목사(뉴욕교협회장), 헌금특송(트럼펫 연주) 김영재 장로, 헌금기도 이계훈 장로(다민족선교회 준비위원장), 축도 박준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희복 목사는 “전능자의 기운”(욥32:8-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전능자의 기운은 성령충만을 말한다”며 “전능자의 기운이 오면 1)충명이 생긴다(8절) 2)꺾어버릴 수 있다(12절) 3)모든 문제가 해결된다(20절)”고 말하고 죽고 사는 것이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으며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2부 이취임식은 정권식 장로(증경회장) 사회로 개회기도 전병삼 장로(뉴욕장로성가단장), 이임사 송윤섭 장로, 회기전달, 취임사 황규복 장로, 신용범 장로, 축하연주 뉴욕크로마프연주단(지휘 이진하 목사, 단장 손옥아 권사), 공로패증정(송윤섭 백달영 정권식 장로), 감사패 증정(김주열 남태현 박정규 배상규 박성범 정덕현 장로), 축사 허연행 목사 김정호 목사, 격려사 황하균 목사(미주서결신학대학교 총장), 위촉장 수여, 임명장 수여, 광고 송정훈 장로(홍보부회장), 폐회 및 식사기도 허연행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장로연합회는 12회기 사업계획으로 7개 분야로 나눠 1)신앙성숙과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목요기도회(매월 셋째 주) △신앙수련회 및 세미나 △교회순례기도회 △전문인 초청 세미나 △기독교 탐방 2)다민족선교(축제)대회 3)장로대학 설립 4)대의협력 활동 강화 5)웃사람 실천참여 6)회원 확보 및 유대강화 7)각종 모임 정례화 등을 발표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1/4분기 감사예배 및 감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뉴욕교협 1/4분기 감사예배 및 감사기도회

뉴욕교협 1/4분기 감사예배 및 감사기도회가 2월 1일 오전 10시30분 새힘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희복 목사는 “48회기 교협 1/4분기 사역을 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타 지역은 뉴욕만큼 사역이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밀리면 죽는다. 돌파해야 한다. 기도의 힘을 얻어 목회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고 역설했다.

1부 감사예배는 총무 임영건 목사 인도로 경배와찬양 송금희 전도사, 기도 이기용 목사(할렐루야전도대회 준비위원장), 성경봉독 황규복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 설교 신현택 목사(증경회장), 봉헌특송 김영환 전도사, 봉헌기도 오인수 목사(겨자씨교회), 축도 이

만호 목사(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신현택 목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시50:22-2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설교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며 “목사되기 전에 목사를 고통하던 사람이었는데 네바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후로 사랑을 보고 설교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통해 신앙의 인물이 됐다. 말뿐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로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합심 및 통성 감사기도회는 김희복 목사 인도로 △2021년 10월 14일 총회 후 48회기 출범감사/김정숙 목사 △10월 24일 이취임식 감사/백달영 장로 △11월 18일 성경통독 세미나/하정민 목사 △12월 12-15일 미스바회개운동 성회 감사/박마이클 목사 △2022년 1월 1-3일 신년금식기도성회/박향우 목사 △1월 16일 신년 감사 및 하례회 감사/박태규 목사 △2월 11일 민속놀이 친교를 위해/이승진 목사 △3월 18일 종말론 세미나를 위해/이종선 목사 △교협과 뉴욕목사회와 세계 75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동포사회와 각 단체와 전도 세계선교 선교사들을 위해/이창중 목사 등 10개의 기도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황경일 목사(증경회장)의 폐회기도와 오찬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교회 100년” 다큐 시사회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김진형 작곡가, 정상교 사장, 김성국 이사장, 장철우 원로목사, 신서연 감독, 이영보 목사.

“뉴욕한인교회 100년” 다큐 시사회

단비기독교TV, 한국정부 후원으로 제작

단비기독교TV(사장 정상교, 이사장 김성국 목사)가 한국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된 “나라 밖에서 찾은 나의 나라-뉴욕한인교회 100년”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1월 28일 오전 10시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진행됐다.

1시간짜리 이 다큐는 설립 100주년을 맞는 뉴욕한인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7개의 이야기로 제작됐다.

△한승인 장로, 기록의 시작 △미주 독립운동의 역사와 뉴욕한인교회 △뉴욕한인교회의 성장 △교회 그리고 사람들 △소리 없이 사라진 뉴욕의 한인 노동자들 △분열의 시기, 그 속의 민주화 항쟁 △나야갈 길, 나아가길 등 7개의 이야기는 신앙적인 면보다는 역사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뉴욕 한인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김아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시사회는 이사장 김성국 목사(윈즈장로교회)의 개회 기도에 이어 정상교 사장의 인사가 있었다.

김성국 목사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뉴욕한인교회에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인사하고 기도했다.

정상교 사장은 “뉴욕한인교회 100주년을 맞아 역사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했다”며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준 높은 다큐를 제작하게 됐다”고 인사했다.

다큐제작을 맡은 신서연 감독은 18년간 한국 지상파 다큐멘터리 PD로서 여러 상들을 받았으며, 2019년엔 휴스턴 국제

영화제 동상 등을 수상했다. 2020년에 뉴욕필름아카데미 영화연출과정 공부차 뉴욕에 오면서 이번 다큐제작에 참여하게 됐다. 음악은 김진형 작곡가가 맡았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단비기독교TV와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2022년 봄학기 개강부흥회 첫날 교수와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주제

동부개혁장신 2022년 봄학기 개강부흥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2022년 봄학기 개강 부흥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주제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간 윈즈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첫날은 총무처장 이종원 목사 인도로 기도 김경수 목사(동문회장) 성경봉독 주경옥 학우, 찬양 신학교찬양대, 말씀선포 김성국 목사, 광고 정기태 목사(학감), 장학총서 및 교훈패 수여 학장, 장학금 수여 이사회 동문회, 축도 김성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학장은 “해석은 하나님께”(창40: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섬겼다”며 감옥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요셉의 섬김을 살펴 보자며 1)근심의 빛에 관심을 가짐 2)하나님께 해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은 강기봉 목사(학생처장) 인도로 설교는 학장 김성국 목사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딤후1:12-17) 제목으로 전했다.

마지막 날은 윈즈장로교회 일일부흥회와 함께 열렸다. 강사는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담임)가 초청돼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21:15-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원정 기자)

일상칼럼

(8면에서 계속)

“하나님, 주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새로움에는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따라온다. 그러나 올 한해도 앞서 가시고 뒤에서 두르시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lpyun@apu.edu



남가주사랑의교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오찬모임에서 노장수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30교회에 2천불씩 총 6만불 지원

남가주사랑의교회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오찬모임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장수 목사)가 주최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오찬모임이 1월 31일 오전 10시 본 교회 친교실에서 열렸다. 임재희 목사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모임은 노장수 목사가 히브리서 13장 20-21절 말씀을 전했다. 노장수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은 동역자끼리 만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고백은 예수 만나고 나니가 주에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 주님은 양들의 큰 목자다.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인도하시고 영혼의 잔이 넘치는 큰 목자시기에 그분 외에 귀한 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목회가 어려운데도,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의 헌신된 마음을 주님은 알고계시기에 큰 목자 되신 예수님보다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노장수 목사는 “교회 사이즈가 좋은 교회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주시고 더욱더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주시길 것이다.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 목사의 설교 후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소개 및 그들의 기도제목 등을 나누며 서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노장수 목사와 남가주사랑의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지원금 전달시간을 가진 뒤 마쳤는데 이날 지급된 지원금은 30교회에 각 교회당 2000달러로 총 6만 달러가 전달됐다. (박준호 기자)

“말씀에 순종해 두 번째 기회를 얻으라”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이동원 목사 초청예배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이동원 목사 초청 예배를 1월 30일에 가졌다. 경배와찬양과 박성국 목사 인도로 오전 11시30분에 열린 3부 예배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가 ‘두 번째 기회(은3:1-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동원 목사는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요소는 생명이고 사명이다. 생명은 사는 명령 사명은 일하라는 명령”이라며 “사명이 있어야 삶의 의미와 존재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 첫째, 우리는 경청해야 한다.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하시고 사람을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신다. 예언자의 전통에 의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 위한 방침은 해당되는 말씀이 내마음속에 솟아올 때이며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라고 말했다.

그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둘째, 다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나를 순종케 하셨다. 팬데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순종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 세 번째, 순종의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적인 뜻이 있다. 그것은 역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반응을 보시는 상대적인 뜻이 있다. 그것은 때때로 바꾸실 수 있는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박성국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동원 목사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신년하례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월 26일 총회 등 연간 계획 발표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신년하례 예배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송종록 목사) 신년하례 예배가 1월 29일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회장 송종록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 김대준 목사(LA비전교회 담임)가 시편 84:3-7을 설교했다. 김대준 목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둘 때 변함없는 행복이 추구가 된다”며 “크리스찬문인협회 회원들이 영원한 분인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받은 메시지로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문인협회에서 성령 은혜에 사로잡혀 글을 쓰고 나눌 때 어떤 영혼이 감격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행복 나누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께 힘 얻고 예배하고 존전 앞에 글 쓰고 나누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러한 삶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송종록 회장이 2022년도 본 협회의 연간 계획을 발표했다. 송 회장은 “오늘 신년하례예배가 열렸고 다음모임은 2월 26일 총회로 모이게 된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 33회 크리스찬문집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다. 출판기념회는 시인 33인 선정해서 족자로 제작해서 증정하게 되며 제4회 시화전을 겸해서 열게 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7월 하순에 신인상 시상식, 8월 아우회식으로 해변문학제(가칭)를 갖게 되고 11월 송년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송 목사는 “코로나시기를 지내고 있어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카톡방과 줌을 통해 작품 나눔, 특강을 진행하려고 한다. 특강은 매월 첫 주 목요일 저녁 7시로 갖게 되며 2월에는 10일에 모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송종록 회장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컴패션 후원예배에서 서정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선한목자교회 컴패션 후원예배

예배 후 엘살바도로 이동후원 결연시간 가져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가 1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 2부 예배를 컴패션 후원 예배로 드렸다. 고태형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이재명 장로가 기도했으며 호산나여성중창단이 찬양했다.

이날 서정인 목사(한국컴패션 대표)가 ‘보냄을 받은 자의 삶(롬10:13-15, 사52: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서정인 목사는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근본으로 내려간다”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 앞에 평가하며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며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 주님을 강하게 붙잡는 은혜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은혜가 삶으로 전파되어 주변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고 우리와 함께 교회로 오기를 바라신다”고 말했다.

그는 “구원은 보냄을 받은 자들로 인해 이뤄진다. 이 세상은 예수그리스도 외에 희망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쓰여 지는 그리스도의 기적 뒤로 안내함과 함께함과 보냄 받은 자의 신념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뤄주신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과목’ 신설

그레이스미션대 1월 28일 무료 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Grace Mission University, 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은 2022년 봄학기에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과목’을 신설하고 오는 2월 12일(토)부터 강의하게 된다.

본 대학은 개강에 앞서 지난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새롭게 확장 오픈한 LA분교 강의실(317 W. Palmer Ave. Glendale, CA 91204)에서 비영리 단체 설립 및 Tax Exempt 신청 무료 강의를 실시했다.

강사 구자혁 교수는 ‘비영리단체의 의미와 혜택’부터 ‘비영리단체의 종류, 비영리단체의 설립 절차와 신청, IRS 및 California Tax Exempt, 은행 구좌 오픈’ 등 비영리단체 신

청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본교는 2022년 봄학기를 통해 15주간에 걸쳐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과목을 Zoom 화상 강의와 녹화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GMU는 미연방교육국 USDE가 확위 인정하는 ABHE, TRACS, ATIS의 정회원학교로서 대학 과정으로 신학학사(BA), 상담학학사(BACC) 학위과정이었으며 대학원과정으로 기독교상담학석사(MACC), 기독교교육학석사(MACE), 선교학석사(MAICS), 목회학석사(M.DIV) 학위과정이었으며 박사과정으로 선교학박사(DMiss)학위와 교차문화학철학박사(PhD) 학위과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www.gm.edu(영어) kor.gm.edu(한국어)와 전화(714-525-0088, Ext101), 이메일 admissions@gm.edu로 문의하면 된다. 학교홈페이지의 Live Chat과 화상입학 인터뷰를 통해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이성자 기자)



구자혁교수가 비영리단체 설립에 관해 강의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에 설명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소망소사이어티 제3회 웰에이징 어워드 추천 모집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제 3회 ‘웰에이징 어워드-아름다운 삶의 여정 상’ 시상식을 위해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1만 달러의 부상이 주어진다. 자격은 △남자 주민으로 80세 이상 △가족 및 이웃 간의 관계가 원만하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기부에도 적극적으로 △전문분야에서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분. 제출서류는 △후보 이력서 및 봉사활동 기술서 △추천증명서(신문/잡지 기사 및 상장 등) △기관장(협회장, 단체장, 교회 목사 등) 1인 이상의 추천서. 추천마감은 2월 18일(금)까지 우편(5836 Corporate Ave. Ste 110, Cypress, CA 90630), 이메일(somang@somangociety.org) 송부 모두 가능하다. 시상식은 3월 11일(금)로 예정돼 있다. ▲문의: (562)977-4580

달라스연합감리교회 신년복음세미나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신년복음세미나가 ‘생명의 복음(요3:16)’이라는 주제로 2월14일(월)부터 17일(금)까지 저녁 8시에 개최한다. 강사는 조영진 감독. ▲문의: (972)258-0991



산타페상담소 재개원 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팬데믹시대 분노 및 부모스트레스 관리’

산타페상담소 재 오픈 감사예배 및 상담세미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본관 1층에 위치한 산타페 상담소(소장 김경준 박사)의 재 오픈 감사예배 및 상담세미나가 지난 1월 21일 개최됐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민중기 목사(총현선교회)는 ‘아름 가정의 치유(창45:21-28)’라는 제목으로 요셉과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 치유되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증거 했다.

또한 동부 워싱턴에 위치한 가족성장상담센터 소장인 옹광복 목사가 Zoom을 통해 대표 심리학과 디렉터인 송경화 교수가 축사했으며 시디스사이나이 병원의 채플린 훈련과정에 있는 송조이 박사가 동영상으로 축사했다.

이날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상담을 비롯해 Zoom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참여한 참석자 45명은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감사예배 후에는 백석대학교 전형준 교수가 ‘팬데믹 시대의 분노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전형준 교수는 팬데믹 시대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소외감, 상실감 무력감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해 사람들이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진단한 후 임상심리학에서 분노관리에 대한 접근법과 성경적 분노상담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산타페상담소 소장 김경준 박사의 ‘팬데믹 시대의 부모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세미나에서 김 박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통제 불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특히 집안일을 비롯해 삼시세끼 밥을 차려야 하고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해야 하는 등 수퍼우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 다른 집단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한 후 부모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무료로 기독교 상담을 제공하는 산타페 상담소는 홈페이지(santafec.org) 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1대일 채팅(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산타페 상담소로 검색)을 통해 대면상담 및 온라인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기사제공: 산타페상담소)



열매교회 여성교회주관으로 ‘길거리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열매교회, 선교기금 마련 ‘길거리 바자회’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는 지난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웨스턴과 워싱턴 블러버드 코너에서 ‘길거리 바자회’를 실시했다.

본 교회 여전도회(회장 박화영 권사) 주관으로 열린 본 바자회는 키르키즈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최석 선교사를 후원

하려는 목적으로 준비됐다. 열매교회는 매년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도회 회원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진행돼 바자회에 동참하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이성자 기자)

투표참여·공명선거 기독교 10대 지침 발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 캠페인도

세계성시화운동본부(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기독교 10대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기독교인 유권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담았다.

운동본부가 제시한 10대 지침은 '투표 참여의 중요성,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후보자의 걸은 길을 꼼꼼하게 살핀다' '후보자가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소식란(주보, 교회 홈페이지)에 투표 참여를 권면하는 공지를 한다' '가족 모임 등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나눈다' '종교예식에서 강론자(설교자)는 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각종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한다'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인식을 갖고 생산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지연 혈연 학연 종교의 벽을 넘어 공명선거가 되도록 힘쓴다' '선거가 끝난 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민화합을 위해 힘쓴다' 등이다.

김철영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10대 지침은 SNS에서도 누구

나 공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특정 정당의 이미지와 겹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 끝에 생명의 약동과 희망을 상징하는 연두색을 바탕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참여 공정 화합'을 키워드로 한 31초 분량의 홍보영상과 '가짜뉴스' '허위사실' '비방'의 글을 유포하지 말자는 24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등 공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아덴만의 여명 작전”

며칠 전 제자 한 분이 책을 한 권 보내왔다. 그것은 청해부대 최영 함장의 고뇌와 결단인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라는 현장 전투 실화였다. 작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진두지휘하여 해적들을 소탕하고, 우리 어선을 무사히 구해낸 영웅적 작전을 한 조영주 대령이었다. 나는 이 책을 잡고 읽으면서 다른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단숨에 독파했다. 말 그대로 생생한 전투장면을 그대로 현장에서 보는 듯 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벌써 11년이 되었다. 그 즈음 북한 공산당이 우리의 천안함을 폭파시키고, 연평도에서 우리 측을 폭격 도발해서 우리 군의 자존심이 구겨진 시절이었다. 바로 그 후에 한국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에서 해적들이 나타나서 우리 어선을 나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최영 함장 겸 청해부대장 조영주 대령과 300명의 해군이 일사불란한 전투로 해적을 소탕하고 우리 어선을 구출해낸 사건은 두고두고 이순신 장군의 해전 이후 잊을 수 없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의 승리였다. 그런데 11년 전 뉴스의 초점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승리로 이끈 조영주 함장보다 오히려 해적의 총탄을 맞고 사경을 헤매던 석해군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더 크게 부각되었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던 석해군 선장을 수술로 살려낸 외과 전문의 이국종 박사가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모든 사건은 방송사가 시청률을 올리고, 국민적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뉴스거리로 만든다. 또 카메라 앵글이 어디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접하고 느낀 것은 2011년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나포된 우리 국민들을 구출하는데 1차 작전은 실패했으나 심기 일전하여 좌절을 극복하고 또다시 2차 작전에 성공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절망적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의 인격과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어떤 공동체나 국가이든 간에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시 해적에게 나포된 삼호주얼리호는 13명의 무장한 해적과 21명의 선원이 뒤엉켜서 피아를 구분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벽 미명에 해적을 제압하고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다. 자칫하면 선원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고, 부하 장병들의 죽음과 부상, 작전 실패가 되면 지휘관은 상부로부터 질책 등 그 복잡한 번뇌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지휘관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해군력을 세상에 알리는 해상 인명 구출 작전에서 영원히 기록될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물론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군 선장의 기지와 그의 협력도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최영함의 함장이요,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기적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끈 조영주 대령의 리더십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그렇다면 어떤 추천자의 말처럼 이 사건도 영화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내가 이 책을 읽고 감동한 것은 단순히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지휘한 조영주 함장의 지휘관으로서의 기지와 결단보다 그의 '신앙인격'이었다. 나도 50년 전에 군복으로 일할 때 전방 철책을 방문하고 병사들을 위로할 적이 있는데 사신을 넘는 장병들은 자신들의 연약을 알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조영주 함장은 위기가 닥쳐오고 힘들 때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었다. 이 책을 읽어보니 조영주 함장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다.

특히 그의 글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한 승리의 비법”이란 부분이 내 가슴을 적셨다. 그는 말하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감 속에서 내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었다. 지금까지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끝내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함장실에서 그는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조르듯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었다. 그리고 그는 함장 책상 앞에 무릎 꿇고 한참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영여성경을 들으려고 리시버를 끼었는데 시편 27편이 들렸다.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리요...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씀이 그에게는 전기가 통하듯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새 힘이 솟았다고 한다. 사실 조영주 함장은 지휘관으로도 위대한 분이지만 신앙의 사람으로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성공시켰다.

그래서인가 그는 “위기의 리더십”이란 곳에서 위기에 처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남겼다. “본질에 굳게 서라”, “신앙으로 무형의 전투력을 극대화 하라”, “지휘관이며! 등대와 같이 우뚝 서서 빛을 비추라”, “위험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라!”, “기존의 사고와 관행에서 빠져나오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다시 눈을 살펴라”, “결국은 사랑이 답이다” 등이다.

곧 대선이 치러진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자그마치 26명이나 되고 그중에 절반이 전과자란다. 참으로 웃기고 기가 막힌다. 그들의 오고가는 이야기가 시중 잡배들과 다르지 않다. 이런 시기에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제대로 된 선장이 필요하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조영주 제독의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는다.

skc0727@yahoo.com

예배·모임 최대한 비대면으로...

오미크론 급속확산속 교회들 '방역수위' 높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각 교회가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김포 한 교회의 집단감염이 알려지면서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교회는 비대면예배로 선회하고 교역자를 중심으로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역하는 A목사는 25일 “오미크론 확산세로 이를 전 주일 예배 후 긴급 당회를 열고 향후 예배와 모임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모든 안 오프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주일 예배는 가능한 한 온라인예배 참석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권장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아쉬워하면서도 비대면예배로 다시 선회하고 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이다.

A목사는 “교회가 그동안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견주면 대중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협력해야 할 때”라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길 원하는 겸손한 믿음의 공동체라면 이때를 잘 보낸 뒤 좋은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 수영로교회는 설날을 맞아 타지를 방문할 경우 최소 1주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권장한다. 교회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성도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온라인예배를 드리고, 교회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것이 기본 매뉴얼이 됐다”며 “설 명절에도 성도들은 이를 잘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B교회 C목사는 “교역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자발적으로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해 왔다”며 “나의 경우 지난 2년간 친지를 방문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은 회중 성가(찬송가)는 부르지 않고,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성도에게만 성찬례 참여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강화했다. 자장면 봉사도 유명한 경기도 광주 창성민교회(장제환 목

사)는 지난 15일 처음으로 사역을 재개하려다 오미크론으로 긴급히 취소했다.

온라인 교회 프로그램을 재점검하는 곳도 있다. 이풍인 서울 개포동교회 목사는 “성도들이 평일에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영성을 지킬 수 있도록 온라인 성경공부와 사랑방(구역예배) 진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중하게 추이를 살피고 있다. 경기도 부천 D교회는 일상 회복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E목사는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사역을어나갈 예정”이라며 “거리두기 강화로 아예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성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교총-한기총 통합 추진 로드맵 합의”

양측 통추위 첫 만남... 2월 중 기본합의서 작성 목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한교총)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한기총)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기관 통합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만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소강석 한교총 통추위원장은 “2월 중 기본합의서 채택→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 합

의서 작성→양 기관에서 임시총회를 거친 후 통합총회 개최”라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소 위원장은 “기본합의서에는 양측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괄적 내용을 담는다.

예를 들면 선거와 운영 방식의 개혁안, 타락하고 왜곡된 단체를 지양한다는 선언 등”이라며 합의서를 만든 후부터는 양 기관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성명을 내는 등 서로 보조를 맞

출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부 합의서는 이 단성이 있는 회원의 자격 여부 등 상세한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후 작성한다. 이후 임시총회와 통합총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연합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제시했다. “회원 교단들의 동의 아래 작은 교단이나 선교단체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민주적인 지도체제와 운영방식을 추구하는 연합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모를 키우거

나 힘을 과시하는 통합, 과거 한기총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통합, 한교총이 주도하는 흡수 통합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위원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고 기본합의서 작성을 소 위원장과 김현성 한기총 통추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기총의 통합에 대한 의지는 한교총보다 크다. 통합에 더 속도를 내고 싶다”며 “이미 통합을 한다는 기본 전제는 깔려 있다. 더 중요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MA 이사회에 선교단체 2명 참여”

정관 바뀌 사무총장 당연직 이사... 선교사 대변 길 열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인 법인이사회에 행정실무와 선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무총장과 선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KWMA는 24일 인천 부평구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열고, KWMA 거버넌스(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정관을 개정했다.

기존 정관 임원 구성에 관한

제3장 10조는 “임원 이사는 25인 이하,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2인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었다. 개정 정관에는 “사무총장과 운영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정책위원회가 추천한 선교단체 대표 2인을 이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동안 KWMA 150여개 회원단체는 법인이사회에 선교단체와 선교사의 입장을 대변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버넌스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1년간 개편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었다.

강대홍 사무총장은 “법인이사 2명, 운영이사 2명, 정책위원 3명과 특별위원,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7차례 모임을 가졌다”며 “지난해 9월 공청회를 거쳐 임시법인이사회를 통해 1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경과보고를 했다.

사무총장의 역할과 권한도 명확히 했다. 회원단체가 탈퇴(8조)를 원하면 기존에 이사장

에게 탈퇴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무총장을 경유하도록 했다. 상벌(9조) 조항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는 내용에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무총장이 포상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개정 정관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사장 이규현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는 “1년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논의하고 연구해 민주적으로 도출했다. 앞으로 법인이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며 정관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이단 규정 용어 일관성 있게...

8개 교단 이대위 협력 방안 논의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모인 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8개교단이대위)가 27일 천안 빛과 소금의교회(유영권 목사)에서 이단 대처 사역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단 규정과 관련한 교단별 내부 상황과 현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모임에는 각 교단 이단대책위원장인 황건구(기독교대한감리회) 유무한(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서한국(예장합동) 서영국(예장고신) 유영권(예장합신) 목사, 심상호 예장통합 직전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단 규정 원칙과 이단 규정 용어 적용에 있어 교단별 차이를 보이는 현실을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갈 필요성

에 공감했다. 이단·이단성' 같은 관련 용어를 규정하고 판단

할 때 교단별 신학과 헌법, 교리를 존중하되 상호 논의를 거쳐 가능하면 통일성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의 혼란을 해소할 목적도 있다.

8개교단이대위는 이외에도

이단 관련 지난 총회 결의사항과 현재 논의, 연구 중인 사안도 공유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와 인터뷰 등 최근 교계 안팎으로 논란을 빚은 이들에 대해 교단별로 어떻게 규정해 판단하고 있는지 등의 의견도 교환했다.

법원,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불인정

추진위 제소 판결... 명성교회, 판결 불복 항소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미라)이 26일 명성교회정성화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직무 집행정지 1심 소송에서 “피고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교회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결정했다.

김삼환 목사가 자신이 설립한 교회의 후임 목사 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김하나 목

사에게 위임목사직을 넘겨주면서 교회가 총회 헌법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컸다.

이와 관련해 수차례 열린 교단 재판에서 아들들 청빙한 결정이 재심까지 가는 혼전 속에 유·무효 판결이 뒤집히다 2019년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되면서 교단 내 법적 논란이 일단락됐다.

당시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헌법상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

라고 하면서도 그가 2021년 1월 1일 이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교회는 당장 위임목사 직무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교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항소할 예정으로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위임목사 직무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교단의 수습안에 대해 교인들에게 의사를 묻는 공동의회를 다시 열어 절차상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mission 선교의 창 (18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세상을 선도해야 할 창조적 소수

2022년 새해 벽두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지구촌 곳곳에서 돌고 있다. 단체들, 기업들, 정당들, 국가들이 생존을 넘어 더 큰 이권과 확장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거나 대치 속에 있다. 인류가 뿔뿔 뿔쳐 코로 나바이러스를 퇴치한다 해도 힘이 버거운 데 이렇게 힘이 국지적으로 분산되니 안타까울 뿐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 이면에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어왔다. 이는 군중보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막중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인류의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갈파했다. 그는 1934-1961년까지 28년에 걸쳐 완성시킨 대작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이란 발생-성장-쇠퇴-해체의 과정을 겪는다. 모든 문명과 문화는 고난을 이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물이다. 한 문명의 흥망성쇠는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계층의 지도력 상실, 민족의 대이동과 같은 사회 환경의 격변일 수도 있다.

2. 창조적 소수가 경계해야 될 일

인간의 역사는 생물과 같다. 끊임없는 도전에 변화를 거듭한다. 만일 밀려오는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크고 작은 문명이나 문화, 집단들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주

그렇다면 지배적 소수자(Dominant Minority)는 누구일까? 역설적이게도 창조적 소수자가 타락한 사람들이다. 창조적 소수자일 때의 사명감과 순수성을 상실한 채 오직 기득권에만 연연하는 자가 바로 지배적 소수자이다. 문제는 창조적 소수가 사라지고 지배적 소수가 그 사회의 방향타를 잡을 때 결국 그 사회와 집단은 쇠퇴를 넘어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역사 이래로 나라들과 크고 작은 문명권마다 지배적 소수들이 따리를 들고 주저앉아 막강한 권세로 세상을 어지럽게 해왔다. 그렇게 버티다가 중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자들이 한 둘인가?

3. 창조적 소수에 대한 사례

바닷물의 염분농도는 평균 2.8%로 알려져 있다. 3%도 채 안 되는 적은 양의 소금기가 온 바다를 정화하면서 무수한 해양생물들을 살아 숨 쉬게 한다. 사람들의 인생살이도 자

위에 오늘의 미국이 세워지도록 기초를 놓았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민족도 독립운동을 위해 한 몸을 초개 같이 던진 창조적 소수들이 있었다. 시대와 교회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과 세례요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 아니, 이렇게 이름난 인물들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조직체 안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한 창조적 소수들이 얼마나 많은가?

4. 창조적 소수를 필요로 하는 세상

금년 3월 9일에는 대한민국에 20대 대통령선거가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후보들에 대한 비교감도가 높다. 필경 저들 중 한명은 당선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당선 이후이다. 과연 대한민국을 저 정도의 사람들에게 맡겨도 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이나 여타

부패의 먹이사슬 이면에는 버젓이 크리스천들이 있음에 우리는 놀라곤 한다. 성경은 말한다. 너희는 존재 자체가 소금인데 만일 그 역할을 못하면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5:13). 실제로 이 말씀처럼 적지 아니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맺음 말

창조적 소수란 공동체 역사의 선한 진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는 비전과 열정의 소유자이며 주인의식이 투철한 사람이다. 공익을 앞세우며 모든 고난과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응전(應戰)하는 사람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역사를 돌아보면 셋째처럼 창조적 소수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만일 루터가 없었다면 과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 만일 청교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이 탄생되었을까? 만일 주님께서 대중적인 사역만 하고 그 제자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과연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역사의 능선마다 창조적 소수들의 헌신과 숨결이 묻어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거대한 크루즈선(Cruise ship)이 움직이는 것은 수많은 승무원과 승객이 아니고 선장과 항해사 등 몇몇의 핵심리더가 움직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다. 그 물줄기 아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창조적 소수로서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나아가 눈앞의 업적이나 몰락적인 수치보다 장래를 내다보며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이끌 인물들을 키워야 한다. 그 핵심은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세상사는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창조적 소수란 바닷물에 녹아있는 2.8%의 염분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크리스천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창조적 소수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창조적 소수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창조적 소수자(Creative Minority)란 문명을 쇠퇴하게 하는 도전의 기미를 누구보다 먼저 간파하고 이에 올바른 응전하도록 사회구성원들을 일깨우고 극복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위협적인 도전에 부딪칠 때마다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응전을 펼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토인비가 말하는 역사의 도전이란 무엇일까? 흥수나 가뭄, 흑한, 지진 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격변일 수도 있고 빈부의 격차나 도덕적 타락, 지도

목해야 할 것은 창조적 소수가 타락하여 지배적 소수로 전락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 요인은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內的)인 것이다. 이는 '휴브리스(Hubris)'라는 헬라어에서 연유한다. '휴브리스'의 의미는 오만, 자만, 신(神)들에 대한 불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ies)'가 이미 이런 성공과 거기서 주어지는 기득권에 안주하여 자기도취 및 안일에 빠져 오만해지면 그때부터 행세하는 집단인 지배적 소수(Dominant Minorities)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연생태계의 구조와 그리 다를 바 없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 부분 시대마다 바닷물의 염분과 같은 창조적 소수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조수의 흐름과 펄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려 애썼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마틴 루터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생명을 걸고 로마가톨릭 교황청에 고독한 승부수를 던졌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때 국교통일령(國敎統一令)이 내려지자 청교도들은 미 대륙으로 건너가 성경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지도자들의 자질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누구나 한계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택할 때 비전과 실력과 덕망을 참고삼아 뽑아야 한다. 사소한 이권이나 인간관계에 맺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할 때 그 후유증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 세상 어느 사회 영역이든 적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포진해있다. 한데 저들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창조적 소수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각종 사건사고 및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21) 아테네 설교에 담긴 헬라철학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스에서 설교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장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아테네 최고 법원의 명칭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곳이 법원인지 광장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레오파고스 법원의 초청으로 아레오파고스 언덕에서 설교했을 수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스 관원 디오니시우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신자(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때에 아테네 영광은 쇠락한 상태였지만 옛 영광의 흔적이 당당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신전들, 헬라문명의 발상지라는 시민의식, 그리고 당대 최고를 자부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설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사도행

다. 반면 에피쿠로스학파는 신적존재는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다고 믿는 이신론(Deism)을 따랐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학으로 두 학파의 철학자들을 설득합니다. 세네카의 글을 인용하여 우연으로 세상 만물이 존재한다고 믿는 에피쿠로

학적 소양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과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아라투스(Aratus)와 에피메네데스(Epimenides) 시구(詩句)를 유창하게 인용합니다. 바울은 당대 헬라 철학자들이 애송했던 시구들을 활용하면서 아테네 철학자들

를 잘 알았습니다. 에피메네데스는 신적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57년 동안 동굴에서 잠이 들어서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플라타르코스가 쓴 '솔론의 전기'에 의하면 에피메네데스가 솔론과 함께 아테네 개혁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작품과 행적으로 메피메네데스는 아테네 유명 인사였습니다.

28절 후반부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We are his offsprings)' 구절은 아라투스(Aratus)의 시입니다. 그는 바울과 고향 길리가야 출신으로 BC 3세기 학자요 시인입니다. 그는 "파이노메나(Phainomena)", "찬가", "에피그램" 등을 썼으나

라 문화향기를 품은 고품격 도시였지만 바울은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헬라문화를 활용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소에서 헬라문화를 체득한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헬라철학의 한 분파였던 견유학파(Cynics)의 가르침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견유학파에서 시니컬(Cynical)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Babbler)'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꼭 한번 사용된 단어인데 견유학파 디온 크리스토스토모스의 상용어입니다. 대표적 견유학자 디오게네스가 아테네와 고린도를 오가며 활동했는데 바울도 아테네 후에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은 철학을 냉소적(Cynical)으로 압도했습니다. 바울에게 철학은 복음에 비해 시시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여유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헬라문화의 심장부에서 순수복음을 전합니다. 헬라 철학과 문학을 충분히 활용한 인문학적 설교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는 청중의 문화를 존중하고, 청중과 래포(Rapport)를 세우고, 청중의 지성을 존중하지만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현재 선교사와 설교자가 맘에 담아야 할 교훈입니다. chap1207@hotmail.com

헬라문명의 요람 아테네에서 인문학적 설교로 하나님을 정확히 전달 스토아학파(범신론)와 에피쿠로스학파(이신론)가 감탄할 지식 갖춰

전 17:22절부터 31절까지 10절입니다. 이 10절의 설교는 신약 신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본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아테네 시민들과 철학자들의 잘못된 신관을 지적합니다. 바울 설교의 청중은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였습니다. 스토아학파는 만물에 신적 생명이 있다는 범신론(Pantheism)을 따랐습니

다. 반면 에피쿠로스학파는 신적존재는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다고 믿는 이신론(Deism)을 따랐습니다.

당대 최고를 자부했던 철학자들이 바울의 설교에 아무런 반박을 못합니다. 헬라 철학과 문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설교에 담긴 바울의 인문

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28절 전반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는 에피메네데스의 시구입니다. 에피메네데스는 그레데(Crete)섬 출신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 보낸 디도서 1장 12절에 인용한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시구의 시인입니다. 바울은 에피메네데

를 인용하여 이 시를 썼고,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이 시는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애송했습니다.

에즈베리신학교 워더링턴(Witherington) 박사는 바울의 아테네 설교가 사회문화적 환경을 활용한 모범적 설교라고 주장합니다. 천주교 신약학자 핏츠마이어는 '아테네는 헬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구원의 참 모습(눅19:1-10)찬206장

인자가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8).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책임지는 마음과 함께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려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주님을 영접할 때 일어났습니다(6). 이론적, 감정적 수남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요1:12-13, 롬12:1-2).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셋째, 그것은 자아부인으로 나타났습니다(8). 구원 후 삭개오의 마음은 과거 죄의 용서받음과 함께 앞으로의 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죄사함과 함께 헌신의 삶까지 나아가는 생활을 포함합니다. 그 구원을 즐기며 감격으로서 우리 이웃에게 전합니다.

화 구원의 왕이신 그리스도(눅19:11-27)찬352장

주님의 비유는 구약의 상징주의와 모형주의로 진리를 나타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비유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를 섬기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열 마나 비유는 그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그나를 맡기는 귀인으로 묘사했습니다(11-12), 왕위를 받으려가는 귀인처럼 그리스도는 구속의 완성자임을 선포하기 위해 죽음, 부활, 승천으로 아

비지계로 가셨습니다. 둘째, 종들은 그에게 붙어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한 마나 곧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구원에 따라 열심히 장사하는 일 곧 구속받은 자로 살라는 왕명을 받았습니다. 셋째, 그 결과는 상급을 포함한 온전한 구원과 관계됩니다. 구원을 완성시키고 재림으로 돌아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왕께 충성된 자가 복됩니다.

수 착한 종의 충성(눅19:11-27)찬214장

구원받은 후 우리는 착한 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착한 종이 됩니까? 첫째,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에서 생긴 열매이고(마5:3) 구원의 영이신 성령의 일하심으로 생겨난 열매입니다(엡5:8-9). 둘째, 작은 일에 대한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그 종은 큰 것이나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작은 일에 두었습니다. 거듭난 마음은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

기 때문입니다. 셋째, 열매를 남기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지만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이 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종들은 오직 피흘리기까지 수고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복음으로 율법의 요구인 의, 인, 신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방 없는 수고와 헌신은 복음의 섬김이 아닙니다. 착한 종이 됩니다.

목 악은 종의 불충성(눅19:11-27)찬410장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 후 구원받은 자의 삶 곧, 장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악한 종이 됐습니까? 첫째,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기독교론적 확신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그 왕이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고 더 깊이 알게 함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자기에게 나올 수 없고 오직 위로 임하는 계시로 찾아옵니다. 둘째, 세상적 두려움

이 충성치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계시가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것으로 주를 섬기는 자는 진리를 혼잡케 해 외식에 떨어 집니다. 셋째, 그는 한 마나의 가치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모르고 구원의 가치를 모르니 그의 명령에 충성할 수가 없고 게으른 자로 사는 것입니다. 불충요소를 회개하고 구원의 보화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금 차등상급(눅19:11-27)찬319장

본문은 상급의 차이를 두심으로써 우리로 열심을 갖게 합니다. 첫째, 상급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입니다(13). 본 비유는 상급의 차별을 두신 하나님의 일을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둘째, 차별된 상급은 말은 일에 충성하게 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17-20). 복음의 은혜는 율법을 경시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말은 일에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함이 성령의 열매이며 영생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우리의 열심을 통해 의 인신이 나타나야만 합니다(마23:23). 셋째, 구원 받은 자라도 버림받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22-23). 참 구원은 참 열심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토 상급의 원리(눅19:16-26)찬507장

하나님나라의 상급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됩니까? 첫째, 주님의 열심이 기준입니다(13). 한 마나 받은 종들에게 동일하게 장사하라고 명하심은 주님은 열심과 수고를 기대하심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그 열심을 따라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의를 위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히 13:13). 둘째, 주님이 친히 값으십니다(17). 구원의 주님만으로도 감격할 일인데 하는 일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값으신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감격하는 열심을 갖게 합니다. 셋째, 주님은 반드시 만물을 구속하시기 때문입니다(26-27). 구속이란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물에 드러내는 일입니다(막16:15). 그 목적으로 일할 때 하늘의 상급 곧,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상급을 누리려는 자가 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7)

온 천하만물 우러러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금문교, 혹은 실리콘벨리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지명 이름의 근원은 혹시 궁금하지 않는지요? 이 지명은 1776년 스페인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정착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를 쓴 13세기 유명한 기독교 성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Francis of Assisi, 출생 Giovanni di Pietro di Bernardone, Francescod' Assisi, 1182-1226)의 이름을 따와서 명명하게 된 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불려지면서 그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 크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이탈리아 가톨릭 평신도 수사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유한 비단상인 가정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을 아주 유복하게 지내며 방탕한 생활을 보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 소유의 비단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자신을 구하러 온 거지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며 그를 돌보았습니

1855-1933)에 의해 1899년 영어로 번역되어 우리의 찬송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의 소재가 된 시편 148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전 우주의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즉 하늘의 천사, 해와 달, 별들, 구름, 그리고 지구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시편 148:5절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다." 이 말씀에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 광명한 별들, 하늘의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즉 하늘위에 떠 있는 구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은 하나님이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만든 찬송 '온천하 만물 우러러'를 통해 찬양의 정당성을 폭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히 피조물인 인간의 범위를 떠나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포하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이름에서 따와 세상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찬양함의 당위성 선포해

다. 이를 계기로 계속해서 그의 관심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나병환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태복음 10장 7-10절에 나타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교훈을 보고 평생 자기의 교훈으로 삼아 그의 남은 모든 생을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지내며 회개를 설교하고 황폐한 교회와 어려움을 복구하는 일에 전념하며 가난한 삶을 선택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소유물이 없는 단순한 삶을 살았지만 쾌활한 미소와 찬양의 삶으로 가득 찬 일상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말년에 거의 장님이 되어 햇빛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클라라 수녀가 스승께서 워낙 대자연들과 벗을 나누고 대화하기를 즐겨하는 모습을 알고 수녀원 정원 안에 남은여생을 자연과 벗하며 보낼 수 있는 작은 갈대 오두막을 지어 스승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프란체스코는 새들과 자연에게 설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찬양의 소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임종하기 한 해 전인 1225년 6월 어느 날 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시편 148편을 소재 삼아 "태양의 송가(Canticle of the Sun)"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온 천하 만물 우러러'(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찬송이 태동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국 성공회 교구 교회의 목사였던 윌리엄 드레퍼(William H. Draper,

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궁극적인 존중을 가지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프란체스코의 삶에서 비추어지는 신앙고백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으로 찬양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을 버려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부단히 노력하였고 그것을 실천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프란체스코는 짧은 44세의 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9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변함없이 캘리포니아 북부의 유명한 도시 샌 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외치며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쓴 "온 천하만물 우러러"(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찬양을 드리며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의 그 당위성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자 프란체스코의 신앙고백에 담긴 영성을 가슴에 새기고 싶습니다. iyoona@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장애인들이 전해야 할 복음” (22)



신약성경에는 다양한 복음들이 있는데 그 본질적 의미는 하나이다. 즉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다만 이 하나의 복음을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측면들을 특별히 부각시킴으로서 많은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대제사장 혹은 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은 어떤 것인지, 영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복음이 발생할 수 있다. 조엘 그린은 4개의 복음서가 주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왜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가? 복음서는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는 문서이다. 바울의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를 위한 저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바울이 고린도의 특별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첫 편지를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각 복음서의 저

각 장애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 장애인들 중에는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며 세상 사람들과 격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능력과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자신도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어 자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 때문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장애인이니까”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남보다 더 악착같은 생활을 하여 소위 세상적인 성공은 이루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정의의 복음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다.

복음의 의미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IQ가 낮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의미는 무

침 안에서 나의 무력한 실존을 발견한다. 무력하게 보이는 그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고 약한 자가 보호받고 사랑받는 나라이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장애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피동적인 사역자들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가 지상에서 그들을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칭의의 복음 : 자신의 장애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

자들도 특정한 필요들을 다루기 위해 각각 그의 복음서를 썼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마태복음과는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즉 요한은 다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다른 독자들과 그 상황에 따라 하나의 복음에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이 강조됨으로 많은 복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장애인 선교를 이해해 보자.

1. 필요한 칭의의 복음

무엇을 이루어야 인정을 받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롬4:5-6) 칭의의 복음이야말로 장애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칭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

엇인가? 그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거나?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선물임(고전12:3)을 믿는다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사의 속죄와 새 언약의 제사를 말로 가르쳤을 뿐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통한 성찬을 통해 행위로 가르치셨음을 생각할 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찬의 식을 통한 행위의 신앙고백도 가능할 것이다. 성찬뿐 아니라 침례와 세례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행위적 신앙고백이므로 세례를 통한 행위적 신앙고백도 가능하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행할 수 없고 사랑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이지만 바로 그들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한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전신마비 장애인을 보며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한 장애인들을 통해 하나

증거했듯이 지금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들이다. 장애인 선교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동역자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된 자리에서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된 마음으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탄의 나라에서 멸망치 않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육 간에 신적 생명(영생)의 풍요를 누리도록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아무 공로가 필요 없는 칭의의 복음이야말로 장애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miju92@gmail.com

세계한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 / 장려상

책명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기독교”



홍수연 (남가주동신교회)

왜 하필 기독교인가? 이 질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나는 회의적이다. 간혹 교회는 타종교의 신보다 하나님이 뛰어난 점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자들의 삶이 타종교에 비해 얼마나 유순하고 이타적인지 또 얼마나 복된 것인지(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복 말이다) 자랑하듯 말하기도 한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의 삶이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보다 청렴결백할 수도 있다. 한 때 안티 크리스트이었던 나에게는 위에 열거한 주장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도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신앙인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에서 말한

니다. 기독교는 득도나 어떤 면에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기독교만이 오직 신의 의지를 강조한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 짓기 좋아하는 인간의 의지를 거뜨히 이기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말이다.

기독교는 신자들의 무능을 강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방법이며 비하가 아닌 호소다. 그냥 주는 은혜를 받기만 하라는 강령이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삶은, 그러므로 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내가 발견되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

타 종교가 흉내 낼 수 없는 어느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를 통한 창조주의 사랑이다...

것들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기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구원의 지표도 결코 될 수 없다. 신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그가 상대적으로 더 유능한 신이기 때문이 아니다. 비신앙인보다 더 거룩하고 고결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나에게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종교가 아니라 비교 불가한 ‘옳은’ 종교, 즉 진리다.

타종교와 기독교의 유사한 점은 찾아보면 많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고대 신화에서 발췌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혹은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의 표면적인 부분을 흉내 내는 수많은 이단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어느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를 통한 창조주의 사랑이다. 저자는 하나님이 그 어느 종교도 흉내 낼 수 없는 신이라는 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다.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가신다”(p.44).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용서는 철저히 수동적이고 일방통행이다.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

약한다. “자신이 깊이 깨어진 존재이며,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뱉속 깊이 안다”(p.120). 이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 바이다.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고 특별하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바로 ‘은혜’다. 저자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은 은혜라고 말한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함과 동시에 외부(곧 하나님)에서 아무 조건 없이 공급되어진다. 이 은혜에 대해 저자는 “받은 자격이 없으나 주어진 호의(p.202)”라고 설명하며 “은혜는 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다(p.202)”고 말한다.

이 은혜 안에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란 것은 없다. 이미 구원은 완벽히 이루어진 것이다. 타종교들은 수련과 선행을 강조한다. 자해에 가까운 훈련과 인고의 시간을 통해야만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16면으로 계속)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종진 목사 2월 2022년도 국내외 성회일정



○ 단국대학교 총동맹회 자문위원
○ 홍익대학교 56회 동문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맹회 상임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이 연구원 동문회 대표교문
서울대학교(ABK)제12기 원외교문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교원(M.Min)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1(월) 저녁 청원순례교회 (피은혜 목사) 010-4586-8642구정 축복성회
- 2(수) 저녁 시내산기도원 (원장 조준상 목사)
- 5(토) 오후 서울글로벌세션센터 (이장성 강숙자 권사) 010-6618-1566 (6주)
- 오후 김포강림교회 (조경숙 목사) 010-8222-1992
- 7(월) 오전 북인천중앙교회(장사무열목사) 010-7733-9106
주최 with협의회(대표총재 장사무열목사)
- 7(월) 오후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 (ABK) Graduation & Ceremony
- 8(화) 오전 인천스망교회 (황귀례 목사) 010-4423-2838
- 8(화)~11(금) 진주기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 010-5228-0631
- 11(금) 오전 한국기독교부흥사연합 (대표총재 고충진 목사)
- 13(주) 저녁 서울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0
- 14(월)~17(목) 전국 목회자 제주도 컨퍼런스
주최: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장소 제주도 상크릴라호텔 강당
서울 만나교회 (윤재봉 목사) 010-7567-8291 (안내전화 1533-4110)
주최: 월드기독교총연합회 (설립대표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정도출 목사)
- 23(수) 오후 광명예수생명교회 (주준순 목사) 멘토링 방송 제작 세미나 010-9424-8475 : 사모 조하라 목사 010-9424-8475
- 24(목) 오후 속초은동교회 (문중복 목사) 010-3323-4080
- 28(월) 오후 안성수양관(원장성창경목사)010-2743-5302
주최 with협의회(대표총재 장사무열목사) 부흥사연수MT
- 28(월)~3.2(수) 세종 생애교회 (최병남 목사) 010-5401-2476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보다 신속하고 빠르니!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특수선교지



내안에 있는 '가시' 제거하며 나아가는 리더!

리더십 저널, 리더십 전문컨설턴트 론 키루치, D 랜스필드의 리더십의 4가지 단점/대안 제시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리더십의 안정감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리더가 선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개인의 실력이나 관계성의 부족함은 반드시 보완해 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별히 공동체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면 이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컨설팅회사 나발렌트(Navalent)의 공동설립자 론 카루치와 다국적 회

계컨설팅회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전략대표로 일했던 데이비드 랜스필드는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의 4가지 대표적인 단점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 해결책 또한 제시한다(Every Leader Has Flaws, Don't Let Yours Derail Your Strategy).

이들의 네 가지 유형분석을 살펴보면 과연 나의 리더십에는 이 4가지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갈 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첫째, 지나친 자신감과 확신에 찬 리더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확신과 추진력이 중요하다. 난관을 돌파하다 보면 불안감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이 "만성적"이 되는 것이 문제다. 리더의 확신이 만성적이라면 오히려 과도한 약속과 비현실적인 전략을 남발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일을 함께 해 갈 사람들에게 불안감이 쌓이게 된다.

사람은 언젠가는 지치게 되므로 리더는 자신의 확신과 자신감이 핵심적이고 필요할 때만 발휘될 수 있도록 만성적인 자신감을 자제하고 평소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적인 자신감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장 먼저 반대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있다. 그러려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반드시 곁에 두고 있어야 한다. 추진력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자신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흑여 멀리하거나 공동체를 이탈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만약 공동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이미 사라졌다

면 외부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확신에 따라 엉뚱한 길로 가는 갈라파고스화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반대의견을 공동체 내에서 찾지 못한다면 외부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부의 의견은 무엇인지도 정기적으로 청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둘째,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리더

리더는 시대적 흐름에 민감해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기 어렵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화려하고 감동적인 말과 약속이 다 이행되기도 전에 다른 약속으로 대체되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리더십을 보완해야 한다.

제시된 비전이 완성되기까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진행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필요한 에너지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만 그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흑여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금세 유행이 지나 의미 없게 될

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자원의 총량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충동적인 결정으로 핵심적인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늘 계산하는 습관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엄격하게 통제하는 리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리더와 반대로 모든 것이 이미 규정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리더십의 유형도 있다. 탄탄한 관리는 가능하나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힘을 감수해야 한다. 과도한 통제를 하지 않기 위하여 먼저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하는 진행사항과 정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정보를 공유해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책임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모든 위험을 자신만 감수하지 않게 되고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나게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려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아 가는데 시간과 에너

만일 자신이 현재 만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눈앞의 불안요소 말고 더 깊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 점검한다. 자신을 리더의 자리까지 오게 한 장점들, 긍정적인 요소를 기억하고, 근본적인 불안요소가 이 장점들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계획하고 작은 것부터 오늘 당장 하나씩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기 과멸의 길로 가게 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휴식이나 심지어 사임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자신이 맡은 리더의 역할이 교회공동체의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자신 안에 있는 리스크 요소를 먼저 파악하고 오늘부터 대응을 시작해 가야 한다. 지난해 자신의 리더십에 나타난 단점은 무엇이었던지, 그 단점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는 단점을 보완한 리더십으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부족함 파악해 끊임없이 보완하는 리더십 안정감 중요 반대의견 청취, 전략적 단계계획 수립, 정보공유 필요

야 한다. 그러나 모든 뉴스에 항상 반응할 수는 없다. 새로운 것을 보면 충동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리더의 유형이 있다. 만성적인 확신에 찬 리더가 공동체에 피로감을 주듯이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리더 역시 공동체에 피로감을 주게 된다.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기 힘들어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할 때 더 많은 열정이 솟아난다면 개척자는 될 수 있겠으나 공동체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된다.

흑여 자신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사로잡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략적인 단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당신의 성향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실제 담당자는 꾸준한 관리자 유형의 동역자가 맡을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

특히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관리의 족쇄를 더 옥죄다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 쉬워진다.

공동체의 주변상황은 늘 변하고 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내리만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부정할 수는 없다. 통제하면 문제없다는 잘못된 안정감을 내려놓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위

지를 늘려야 한다.

넷째, 불안해하는 리더

만성적인 확신에 찬 리더십도 문제지만 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 노심초사하는 리더도 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친절한 리더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유부단하며 다른 리더십에게 휘둘러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독후감/장려상

(15면에서 계속)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진정한 변화의 힘은 우리 내면이 아닌 바깥에서 시작되며, 구원은 우리의 성취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얻는다고 가르친다"(p.211). 다른 종교는 신자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강요하지만 기독교만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앞세운다. 왜냐하면 저자가 말하는 대로 기독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p.163)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다. 주님처럼 사는 법을 배우는 진리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경우를 본다. 가시적인 헌신과 순종이 제공하는 일종의 안도감과 함께 마치 우리의 선행과 섬김이 구원을 보장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생활'에 더 무게가 실어진 탓이다. 생활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비로소 생활이 된다. 다만 이 '생활'이라는 부분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필연적인 반응이라고 저자는 밝힌다.

모의유엔대회 4개상 수상 쾌거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이 온라인 대회 참여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학생들이 지난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총 3박4일 동안 예일(Yale)대학교 주관으로 개최된 온라인 모의유엔대회(YMUN)에 참가해 우수상을 비롯한 총 4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금년 48번째로 개최된 Yale 모의유엔대회는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기로 이름난 대회로서 전 세계 약 200개의 고등학교

에서 1,8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에게는 모의유엔 뿐만 아니라 예일에서 주관하는 Yale Day와 다양한 스피치 강의일정에도 참여할 기회가 제공됐다.

19명의 KAC MUN 학생들은 각각 다른 UN회원국 국가 대표로서 총 13개의 위원회에 배정돼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과 협상을 벌인 끝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s)에 참가한 '제이미 임(Jamie Lim)' 학생과 '지니 (Jeannie Kim)'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고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 참가한 '매튜 세이(Matthew Hsieh)' 학생과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 참가한 '마이클 세이(Michael Hsieh)' 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올해 MUN 학생들이 이뤄낸 성과를 축하하며,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 학생들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키우고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이해하는 값진 경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실했다'고 설명하며 "이런 성실한 준비과정을 통해 한미연합회 MUN 학생들이 지도력과 협상력 등 훌륭한 외교 역량을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이룬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교회 단체 주문시 교회로고로 바꿔 드립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p@chpress.net / 718-886-4400

Hisfinger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출판사 히즈핑거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주세요.

(주일학교용)

영어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주세요.